



바른답 · 알찬풀이

고등 문학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1) 문학의 본질

작품 1 배를 매며

내용 확인하기

9쪽

1 ㉔ 2 ㉑ 3 ㉓

1 이 시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빛'은 사랑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환희의 정서와 관련된 단어이다.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㉑, ㉒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배'와 화자를 이어 주는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 맺는 인연을 의미한다.
- ㉓ '부드갸'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의미한다.
- ㉔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

2 1연에는 갑자기 시작된 사랑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㉑ 2연에서 화자는 부드럽가에 낚 놓고 앉아 있다가 던져진 밧줄을 받고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㉒ 3연에서 화자는 잔잔한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다.
- ㉓ 4연에서 화자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 ㉔ 5연에서 화자는 운명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을 느끼고 있다.

3 화자는 2연에서 던져지는 밧줄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매게 되듯이 사랑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4연에서 배를 묶으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이 사랑도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환경을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오답 풀이

- ㄱ. 2연에서 화자는 부드럽가에 낚 놓고 앉아 있다가 우연히 던져진 밧줄을 받았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사랑이 얻어진다 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ㄴ. 이 시에서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깨닫는 내용은 없다.

작품 2 성난 풀잎

내용 확인하기

11쪽

1 ㉓ 2 ㉑ 3 ㉓ 4 ㉕ 5 ㉑ 6 ㉔

1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본성이라는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말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말이라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㉑ '어질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는 뜻이다. ㉑에서는 '하늘과 땅(자연)'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부여하여 '어질지가 않다'고 표현하였다.
- ㉒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인용한 것이다.
- ㉓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㉔ ㉑은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글쓴이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생태계, 인간사와 무관한 자연재해의 예를 제시하면서 '자연스럽다'가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경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㉑ 자연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㉒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㉓ 동양의 운명론적 가치관과는 관련이 없다.
- ㉔ 서양의 전통적인 자연관과는 관련이 없다.

3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㉑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는 농부의 생각이 아니다. 농부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보았다.
- ㉒ 농부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잡풀이라고 한다.

④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한 글쓴이의 관점이 농부의 관점이 아니다.

⑤ 농부는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잡풀의 서러움을 이해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 ㉠은 글쓴이가 잡풀을 제거하다 풀독이 올랐던 경험으로, 잡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글쓴이는 잡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하려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담은 수필로, ㉠은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②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잡풀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③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자연의 본성에 대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풀을 뽑고 베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잡풀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글쓴이는 인위적으로 주사를 맞아 풀독을 낮게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 따라서 잡풀의 본성과 싸워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는 풀독이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대한 잡풀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치료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치료하고 싶어 했다.

③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풀독이 오른 것을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④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것은 자신이 잡풀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⑤ 병원의 주사는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치료법이다.

6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따져 차별하는 태도를 경계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잡풀의 입장에서 풀독을 이해하고자 한다.

② 글쓴이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③ 글쓴이는 자연을 비롯한 다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글쓴이는 있는 그대로의 제 본성을 이해하고 따르고자 한다.

소단원 평가

13~16쪽

1 ② 2 ⑤ 3 ③ 4 ① 5 ② 6 사랑의 기쁨으로 인해 설레고 있다. 7 ① 8 ⑤ **서술형은 이렇게** 화자는 사랑은 갑자기 시작되어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배려(또는 이해) [2단계] 풀독이 오른,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 [3단계] 이 작품의 '나'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보기>의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이해)하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게 된다.

1 이 시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랑의 본질을 고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③ 이 시에는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는 배를 매는 일을 사랑의 과정과 본질에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을 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시에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이 시는 부둣가에서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화자의 사고가 확장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고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밧줄이 날아옴. → 배를 맬. → 매어 있는 배를 바라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이 시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과정'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유추)

③ 이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인 사랑을, 배를 매는 구체적인 행위에 빗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이 시는 배를 매는 일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라는 시구를 통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사랑을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통해,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뛰어가' 잡는 밧줄을 통해, 사랑을 맞이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넋 놓고 앉았다'를 통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어찌할 수 없이'를 통해, 거부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4 <보기>는 남포에서 입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으로, 비가 갠 후 고운 풀빛의 남포와 이별의 슬픔을 대조하여 화자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 시는 자연사와 인간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시는 '잔잔한 바닷물', '빛 가운뎃배'에서, <보기>는 '풀빛이 고운데', '푸른 물결'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이 시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고, <보기>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 <보기>는 '슬픈 노래', '이별 눈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시의 '부뚝가'는 화자가 사랑을 맞이하는 공간인 반면, <보기>의 '남포'는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공간이다.

- 5 이 시는 사랑에 대한 기쁨의 정서를 자연 배경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정서를 영탄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음성 상징어 '털썩'을 사용하여 밧줄이 던져지는 상황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없이', '갠', '구름과 빛과 시간' 등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사랑은(이란)~ -니(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랑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6 '빛'은 사랑의 기쁨을, '울렁이며'는 설렘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사랑의 기쁨에 빠져 설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빛'과 '울렁이며'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 5 |
| '빛'과 '울렁이며'의 의미를 정확히 밝혔으나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 |
| '빛'과 '울렁이며' 중 하나의 의미만을 정확히 밝혀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 1 |

- 7 ㉠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②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을 의미한다.

③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⑤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은 꿈과 기쁨과 세월 등 상대방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물, 시간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랑임을 의미한다.

- 8 <보기>는 이 작품과 같은 작가의 시로, 사랑을 떠나보내는 것을 배를 물 위로 밀어내는 것에 비유하여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가 배를 매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사랑을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의 화자는 사랑의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이별의 과정을 '배를 미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 등을 통해 <보기>의 화자가 느끼는 공허함, 쓸쓸함 등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를 통해 이별의 과정이 힘든 일임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를 통해 이별 후에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 알 수 없음을, '슬픔도 / 그렇게 밀어내는 것' 이지를 통해 슬픔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9 이 글은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거나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에서 물음의 형식이 쓰였지만 이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과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큰 잉어가~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의 예시를 통해 자연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풀독이 오른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연의 본성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갓 잡풀일망정~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아니었던가.'에서 설의법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10 ㉠은 농부의 필요에 따라 버려지는 잡풀의 서러움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잡풀이 자기 하기에 따라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농부의 필요에 따라 작물로 길러지기도 하고 잡풀로 베어지기

도 하는 잡풀의 서러움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②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것은 주인의 관심을 받은 풀이 잘 자란다는 뜻이다.
- ③ 잡풀이 작물과 경쟁을 하여 농부의 원수가 되면 덧없이 죽어 간다는 것을 통해 잡풀의 서러움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잡풀의 신세는 농부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11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는 '자연스럽다'의 의미는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제 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풀이 자신을 함부로 베어 내는 대상에게 화를 낸 현상인 '풀독'이 시간이 흐르면 순리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을 글쓴이의 견해와 가깝게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자연이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 ③ 농부가 잡풀을 작물과 구분하여 제거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 ④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잡아먹는 것은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 ⑤ 천치가 만물을 길러 낼 때 어떤 것도 편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12 글쓴이는 잡풀에 대한 농부의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잡풀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우쳐 주고자 한다. 잡풀을 작물과 구분해서 베어 버리는 농부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잡풀의 입장에서 서서 잡풀의 서러움을 이해하는 '나'는 이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죽어 가기 마련이다.'를 통해 농부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를 통해 모든 존재는 저마다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 준다.
- ④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없을 터이다.'를 통해 잡풀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글쓴이의 이타적 관점을 보여 준다.
- ⑤ 글쓴이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농부와 유사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였으나, 풀독이 오른 후에는 잡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13 글쓴이는 만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즉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를 '성난 풀잎'이라는 제목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성난 풀잎'의 '성'은 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제목은 풀잎을 감정을 지닌 존재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 ②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풀독'은 자신을 해하려는 존재에게 반발해서 나타난 반응이다.
- ③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 ④ 잡풀의 본성을 이해한 글쓴이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병원을 찾지 않았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이 작품의 '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깨닫는다. <보기>의 '나'는 곤충이나 꽃과 같은 존재를 배려하는 두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에 대해 배우게 된다.

■ 2단계 : <조건> 확인 및 적용

이 작품의 '나'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잡풀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보기>의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이 작품과 <보기>의 '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이해)하는 삶을 서술하고, 삶을 성찰하게 된 계기로 풀독이 오른 경험과 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이 작품과 <보기>의 '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서술하였으나, 삶을 성찰하게 된 계기를 이 작품과 <보기> 둘 중 하나만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3 |
| 이 작품과 <보기>의 '나'가 삶을 성찰하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출제 의도상 두 작품의 '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삶을 성찰하게 된 계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보다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더 큰 감점을 받을 수 있다.

(2) 문학의 내용과 형식

작품 1 어부사시사

내용 확인하기

19쪽

1 ③ 2 ④ 3 ③

1 이 작품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유교적 충 사상을 바탕으로 풍류를 즐기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만경당파의 슬크지 용여허자에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무심한 빅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에 물아일체의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 ④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에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선계나가 불계나가 인간이 아니로다'에 속세를 초월한 듯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 있다.

2 '연잎, 청약립, 녹사의'는 여름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눈, 천첩옥산'은 겨울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 ㄱ 봄임을 드러내는 소재는 '온갓 꽃'이다.
- ㄷ 가을임을 드러내는 소재는 '가을', '살진 고기'이다.

3 ㉠은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의 공간으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은 화자가 떠나온 속세로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풍족함을 느끼는 공간은 ㉠이다.
- ② ㉡은 그리움의 공간이 아니라 멀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 ④ 화자가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은 ㉠이다.
- ⑤ 화자가 ㉠과 ㉡에서 고독감을 느끼는지는 알 수 없다.

작품 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내용 확인하기

21~25쪽

1 ④ 2 ④ 3 ⑤ 4 ④ 5 ⑤ 6 ① 7 ③ 8 ④
9 ① 10 ③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이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구보가 사회적 실업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구보는 한낮에 집을 나와 목적지나 특별한 이유 없이 경성 거리를 배회한다. 그가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 이유도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원편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자신의 시력 검사표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뿐, 안과 치료를 받기 위해 종로 네거리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 ② 구보는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 ③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시된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3 구보는 사오 년 이상을 같이 살고도 새로운 기쁨을 가져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를 부러워하며 축복해 주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구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 ② 구보가 부러워한 것은 그들이 가진 새로운 기쁨이나 그들이 찾을 행복이지, 경제적 부가 아니다.
- ③ 구보는 젊은 내외를 축복해 주려고 한 것일 뿐 그들을 통해 자신도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아니다.
- ④ 제시된 글에서 젊은 내외가 구보를 멸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 구보는 안전지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그곳에 혼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낀다.

오답 풀이

- ① 갈 곳 없는 자신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②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을 뿐 행복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동대문행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생각한 것은 전차에 오르고 난 후이다.
- ⑤ 안전지대로 가면서 구보가 떠올린 생각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이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5 구보는 이전에는 자신이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으나, 요사이 고독이 두려워 교외를 찾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고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구보는 교외에는 자연이 있고 한적이 있지만 고독조차 준비되어 있어서 묘사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②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를 통해, 구보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구보는 사람들이 모두 전차에 오르자 안전지대에 혼자 남는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전차에 올랐다.
- ④ 구보가 고독을 사랑한다고 한 말은, 자신이 고독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위안하기 위해 꾸민 말이다.

6 차장의 '표, 찍음쇼'는 고독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구보를 일깨워 주머니 속의 동전을 꺼내 관찰하게 함으로써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오답 풀이

- ② ㉠은 구보가 소설가로서의 역할을 상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③ 제시된 글에서 행복에 대한 구보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 ④ 구보가 어머니에게 주번머리 없다고 질책을 받는 장면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보의 생각이다.
- ⑤ 구보는 동전을 바라보며 행복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찾아내려 하지만 결국 의미 있는 기억을 찾아내지 못한다.

7 구보는 종묘를 지나면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다가 실패하고,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벗이 있는 대학 병원이라도 들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별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문득, 대학 병원이라도 들을 것을 그랬나 해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에서, 구보 자신의 기억 속에 행복했다고 떠올릴 만한 따뜻한 기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⑤ '그를 찾아가, ~일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구보는 손바닥 위에 있는 다섯 동전의 발행 연도를 살펴보다가 발행 연도의 어느 해에도 행복한 적이 없었음을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어떤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보의 내면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구보가 동전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과거를 생각했을 뿐이지, 전차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 ② [A]와 이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③ [A]에 여러 사건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⑤ 구보의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떠오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일련의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진행되지는 않는다.

9 구보는 지금 막 차에 오른 듯싶은 여성을 보고 신기하게 놀라고, 그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이 있는 곳을 보았을지 궁금해한다.

10 구보는 여자를 아는 체를 해야 할지, 모르는 체를 해야 할지, 그 둘 중에 여자가 어느 편을 바라고 있을지 등을 헤아리며 결정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구보의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여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채 여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최악이라고 여길 정도로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다.
- ②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결눈질하는 모습 등을 통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은 채 자기의 생각으로만 이런저런 일을 가정하는 모습을 통해, 관념적이며 행동력이 부족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마땅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모습을 통해, 결정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1 ㉠, ㉡, ㉢은 구보를 가리키고, ㉣, ㉤, ㉥은 여자를 가리킨다.

12 구보는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이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면 후회하지만 정작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경성 거리를 배회하면서도 그토록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 ② 제시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④ 여자와 함께 행복을 놓쳤을지도 모르겠다며 후회하지만 여자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 ⑤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 것은 아니다.

13 (자)~(타)에서는 서술자가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입장을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구보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짐작할 만한 행동이 묘사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전지적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구보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구보는 여자를 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여자를 놓치고 난 후에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구보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구보는 일 년 전 여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호감을 표현하였다.
- ⑤ 구보는 여자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 일 년 전 만남에서도 호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14 구보는 여자를 따라 전차를 갈아타고 싶었지만 일도 없이 여자를 따라 전차에 탄 것을 여자가 눈치채고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여길지 생각하여 따라 내리는 것을 그만둔다. 따라서 여자가 구보를 얕본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구보는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애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따라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 ② 구보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따라 내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 ③ 구보는 왜 여자에게 좀 더 대답하지 못하였을까 후회한다.
- ⑤ 구보는 일 년 전 여자에 대해 가졌던 호감을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속인 것은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

15 (파)는 여자와 만났던 일 년 전 사건을 서술한 부분인데, ㉞는 현재형 문장으로 구보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구보의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그런 것’은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리킨다.
- ⑤ ‘제 자신’은 구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단원 평가

26~29쪽

1 ⑤ 2 ④ 3 ② 4 화자는 눈 덮인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5 ② 6 ③ 7 구보가 한 손에는 산책을 의미하는 ‘단장’을 들고, 한 손에는 글쓰기를 의미하는 ‘공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거리를 산책하면서 소설을 창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③ 9 ③ 서술형은 이렇게 구보는 유우부 단하고 소심하며 지나치게 사색적이다. 10 ⑤ 11 ②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의식의 흐름, 무기력 [2단계] 내면 의식 [3단계]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이 작품은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촌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하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각 수마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무심훈 빅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에서 백구(갈매기)를 욕심이 없다고 의인화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온갖 고지’, ‘청약립’, ‘늑사의’, ‘갯울’, ‘눈’ 등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어부 생활의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언어의 조탁이 뛰어나며 우리말과 한자어의 세련된 혼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2 <하사 2>에서는 자연 속에 동화된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 <동사 4>에서는 눈 덮인 어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두 수에서 화자는 속세를 떠난 즐거움을 드러낼 뿐, 임금에 대한 그리움(연군지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강촌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묘타'에서 강촌의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심훈 빅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삶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만경당파의 슬크지 용여하자’에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만경당파의 슬크지 용여하자,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털 옥산에서 속세를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시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에 변화를 준 여음구를 통해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흥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㉞은 여음구이므로,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지국총 지국총 어스'는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내는 소리를 나타낸 말로, 강호에서 느끼는 흥취를 복돋는 역할을 한다.
- ③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각 수마다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시상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한다.
- ④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 준다.
- 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여음구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4 '만경류리'는 '만 이랑의 유리'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이르는 말이고, '천텃옥산'은 수없이 겹쳐 있는 눈 덮인 산을 이르는 말이다. 즉, 화자는 눈 덮인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만경류리'와 '천텃옥산'의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을 서술한 경우 | 5 |
|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였으나 '만경류리'와 '천텃옥산'의 대상 중 하나만 밝힌 경우 | 3 |
|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만을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우 | 1 |

5 구보는 사오 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거리로 나온 젊은 내외를 부러워하며 축복해 주기로 한다. 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전차', '화신 상회' 등은 근대화된 경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다.
- ③ 구보가 자신의 시력을 염려하는 것은,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무력감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 ④ 목적지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구보의 모습은, 당대 지식인의 방향 상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⑤ 삶의 행복은 물론 방향성도 상실한 무기력한 지식인인 구보의 눈에는, 새로운 기쁨을 가진 젊은 내외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도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6 구보는 화신 상회에서 젊은 내외를 보며 그들은 분명히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지대에서는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행복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 ① 구보는 화신 상회가 아닌 안전지대에서 사람들이 전차에 오를 때 그곳에 자신만 혼자 남겨지자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낀다.
- ② 구보는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화신 상회에 들어가고, 발 가는 대로 안전지대에 와 서게 된다.
- ④ 구보는 안전지대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행복은 알 수 없고 목적지만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⑤ 구보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로 다짐하거나 좋은 글을 쓰기로 다짐하는 내용은 제시된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7 '단장'은 산책을 의미하고 '공책'은 글쓰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구보가 거리를 산책하며 소설을 창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단장과 공책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보의 소설 창작 방법을 서술한 경우 | 5 |
| 단장과 공책의 의미 중 하나만 구보의 소설 창작 방법과 관련하여 서술한 경우 | 3 |
| 구보의 소설 창작 방법만을 서술한 경우 | 1 |

8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와 초점 주체(보는 이)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소설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② 처음부터 끝까지 구보에게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한 부분은 없다.
- ⑤ 구보가 보고 들은 것에서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지, 서술자가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로 교차시키는 것은 아니다.

9 어머니가 구보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둘을 이어 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먼저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된다는 말로, 여자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구보에게 어울린다.
- ② '빨은 안으로 굶는다'는 것은 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함은 인지상정이라는 말로, 남들에게 아들을 좋은 말로 변호하는 어머니에게 어울린다.
- ④ '쇠뿔도 단김에 빠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망설이기만 하는 구보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⑤ '상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도 있다'는 것은 평소 생각하던 것이 꿈에도 나타난다는 말로, 여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는 구보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10 이 작품은 구보의 생각을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심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끊어 준 것은, 리듬감

을 형성하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이 긴 문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 ② 심표는 긴 문장을 끊어 줌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③ 긴 문장은 구보의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 ④ 심표는 독자가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여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11 ㉓는 구보가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㉔는 <보기>의 '나'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구보는 ㉓가 여자와 함께 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하지만, <보기>의 '나'는 '너'가 오랜 세월을 다하며 오고 있다고 믿으며 다가가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구보는 ㉔를 찾고 있고, <보기>의 '나'는 ㉔와 만나길 원한다.
- ③ <보기>의 '나'는 먼 데서 오고 있는 '너'와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 ④ 구보는 ㉓가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한다.
- ⑤ 구보는 ㉔를 구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보기>의 '나'는 ㉔를 적극적으로 맞이한다.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시간의 순서와 논리성을 무시한 채 등장인물의 의식과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을 그리고 있고, <보기>는 '나'가 무기력하고 분열된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되찾고자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즉, 두 작품은 모두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 2단계 : <조건> 확인 및 적용

생각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서술 방법은,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 의식(생각, 심리)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서술 방법 및 주제의 공통점과, 서술 방법이 주제 전달에 끼치는 효과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서술 방법 및 주제의 공통점을 서술하였으나, 서술 방법이 주제 전달에 끼치는 효과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 |
| 서술 방법의 공통점인 의식의 흐름 기법만을 서술한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출제 의도상, 두 작품에 사용된 공통적인 서술 방

법이 주제 전달에 끼치는 효과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술 방법 및 주제의 공통점을 모두 서술하였어도 서술 방법이 주제 전달에 끼치는 효과를 밝히지 못한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30~35쪽

1 ④ 2 ③ 3 ④ 4 ② 5 [시]의 화자는 '사랑'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묘]의 화자는 '나의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6 ⑤ 7 ② 8 ④ 9 ② 10 ⑤ 11 ④ 12 ㉓는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고 저절로 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자연의 본성이라는 의미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자연의 본성을 거슬러 자기를 해하려는 존재에게 반발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풀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13 ① 14 ③ 15 ③ 16 ③ 17 ② 18 ④ 19 [시]에서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워서 피하고 있고, '나'는 자살한 사내와 어떤 일도 연관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다.

1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인 사랑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동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나)는 모란이 피었을 때 느끼는 환희의 감정과 모란이 지나고 난 이후 느끼는 설움의 감정을 '찬란한 슬픔'이란 표현을 통해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미 상관의 구조로 형태적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 ②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③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이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설움', '서운케', '섭섭해 우웁네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나)는 모란 자체의 객관적 아름다움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소망, 보람,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이 사랑도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 ②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에서, 화자가 사랑의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모란은 화자를 삼백예순 날 기다리게 하고, 시들어서 떨어지면 화자의 보람마저 무너지게 하는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자 삶의 보람이다.
- ⑤ (나)의 화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란이 지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3 '뛰어가'에는 갑자기 시작된 사랑을 맞이하는 반가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털썩'이라는 의성어를 통해 밧줄이 던져지듯이 갑자기 시작되는 사랑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뚝뚝'은 모란이 떨어질 때 느끼는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 ③ '털썩'의 어감을 통해 조용한 부딪기에 일어난 동요를, '뚝뚝'의 어감을 통해 봄을 여인 슬픔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⑤ '뚝뚝'은 봄을 여인 슬픔과 관련하여 눈물의 이미지와 결합할 수 있다.

4 ㉠에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입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로,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에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에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④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에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에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5 [A]의 화자는 사랑을 운명적인 것이라고 여겨 받아들이고 있고, [B]의 화자는 '나의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A]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B]의 간절한 기다림의 태도를 모두 서술한 경우 | 5 |
| [A]와 [B]의 태도 중 하나만을 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 3 |
| [A]와 [B]의 태도 중 한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그 설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1 |

6 (가)는 '무심한 백구'에서, (나)는 '얼굴 부비는 소리', '저희끼리 소근대며' 등에서, (다)는 '성이 난 풀잎' 등에서 자연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다) 모두 자연에서 배워야 할 삶의 덕목을 발견하고 있지 않다.
- ②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은 (가)이다.
- ③ (가)에는 영탄적 어조와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지만, (나)와 (다)에는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가)~(다)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7 (나)는 산문적 리듬과 끊어 읽기의 호흡을 통해,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가)에서도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8 (다)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긴 했으나, 문답의 형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저토록 단단한'이라고 끝을 맺음으로써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온갖 소리들이 흘러 들어가서 단단한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고요가 생겨난다는 것은 의미상 모순되지만, 이를 통해 도토리묵 한 모가 탄생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를 청각적으로 드러내므로 역설 표현에 해당한다.
- ⑤ 풀뚝이 오른 것을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다.

9 출항과 정박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인데, 이것은 의성어가 아니다. 의성어는 중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인 '지국총 지국총 어스'이다.

오답 풀이

- ①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출항과 정박의 과정을 보여 주며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 ③ '온갖 꽃', '청약립, 녹사의' 등을 통해 각 계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 시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의 평시조 형식을 취한다.
- ⑤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에 변화를 준 연시조의 형식을 통해 어부의 흥겨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에는 자연의 본성에 대해 깨닫고 잡풀을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의 '밤물'은 써물을, '남물'은 밀물을 의미한다.
- ② ㉠의 '온갖 고지'에서 꽃이 핀 봄의 풍경을 알 수 있다.
- ③ ㉠은 도토리알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의인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④ ㉠은 명석에 널린 도토리알에 내리찍는 늦가을 햇볕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11 개가 맞아 죽은 것은 제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인식을 지닌 글쓴이가 크기에 따라 생명을 차별하는 '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② 모든 존재는 저마다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글쓴이가 생명을 차별하는 '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③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글쓴이가 편견에 사로잡힌 '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⑤ 자연의 본성을 이해한 글쓴이가 현상의 외면만을 보는 '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12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풀독'은 자신을 해하려는 존재에게 반발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닫는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의 의미를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풀독'의 본성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의 의미를 밝히고 '풀독'의 본성을 서술하였으나, 둘을 연관지어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 |
| ㉠의 의미만을 밝힌 경우 | 1 |

13 (가)는 여자의 시선을 피하는 구보의 행동을 통해 소심한 성격을 드러내고, (나)는 자살한 사내를 두고 급하게 여관을 빠져나오는 '나'와 '안'의 행동을 통해 이기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것은 (가)이다.
- ③ (가)와 (나) 모두 인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다.
- ④ (가)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고, (나)는 주인공 '나'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춰 서술하는 것은 (가)이다.

14 (가)에서 구보는 '동전'의 숫자에서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어떤 의미도 찾아내지 못했고, (나)에서 이른 아침에 내리는 '짜락눈'은 자살한 사내를 두고 도망 나온 '나'와 '안'의 암울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구보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맞보고 전차에 뛰어올랐다.
- ② 사내가 계속해서 울어도 '나'와 '안'은 멀리 떨어져 기다릴 뿐이다. 이러한 이들이 걷는 적막한 거리는 무관심하고 삭막한 인간 관계를 암시한다.
- ④ 구보는 전차에서 일 년 전에 만난 여자를 다시 보게 되고, 여관에 들러간 사내는 다음 날 자살한 채로 발견된다.
- ⑤ 구보는 전차를 타고도 목적지를 갖지 못했고, 세 인물은 여관의 방에 각자 들어가면서 서로 단절되고 소외되게 된다.

15 (가)는 구보의 하루 여정에 따라 여로형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것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첫 어절을 소재목으로 처리한 것은 이 소설이 시도한 새로운 기법이다.
- ② 심포의 잦은 사용은 독자들이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해서 구보의 심리를 섬세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 ④ '벽으로 나뉘어진 방들', '숙박계에 적은 거짓 정보'는 현대인의 단절과 소외를 상징한다.
- ⑤ '나', '안', '사내'의 대화는 짧은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인간적 유대 관계가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16 <보기>의 '나무'는 제가꿈 서 있어도 다른 나무들과 숲을 이루며 유대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사내의 울음에 무관심한 '나'와 '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술한 사람들'은 (나)의 '나', '안', '사내'의 모습과 비슷하다.
- ② 인간적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기>의 '광화문 지하도'는 (나)의 세 인물이 걷는 '어두운 골목길'과 비슷하다.
- ④ (나)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내'는 <보기>의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숲'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구보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애달픔을 느끼고 고독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소망한다. 그러므로 숲을 이루는 나무와 같은 삶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다.

17 ‘사내’는 자신이 죽을 것을 ‘나’와 ‘안’에게 알리지 않았다. ‘안’은 ‘사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내’가 알려서가 아니라 눈치로 짐작한 것이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오답 풀이

- ① 등장인물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현대 도시인의 개인 주의, 의사소통의 단절 등을 보여 준다.
- ③ 숙박계에 거짓 정보를 적는 ‘나’의 행동을 통해, 개인의 노출을 꺼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우울하고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1964년 도시인의 삶을, 제목을 통해 보여 준다.
- ⑤ ‘역시…….’라는 말을 통해 ‘안’은 ‘사내’가 죽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내’를 혼자 두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혼자 방에 들어가게 한 ‘안’은, 현대인의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관을 보여 준다.

18 구보가 교외를 즐기지 않는 이유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전차가 왔지만 구보는 목적지가 없어서 서 있는 것이다.
- ② 구보가 전차를 탄 이유는 목적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안전지대에 홀로 남는 외로움과 애달픔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③ 구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 ⑤ 구보는 이전에 소개받았던 여자를 알아보고 그녀를 전차에서 만난 것에 놀라워한다.

19 [A]의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워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한편 [B]의 ‘나’는 사내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급히 여관을 빠져나온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A], [B]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심리를, 각각 피하고자 하는 대상을 밝혀 모두 서술한 경우 | 5 |
| [A], [B]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심리를 밝혔으나, 피하고자 하는 대상 중 하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 | 3 |
| [A], [B]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1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감상의 맥락

작품 1 이생규장전

내용 확인하기

39~42쪽

1 ㉠ 2 ㉡ 3 ㉢ 4 ㉣ 5 ㉤ 6 ㉥ 7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을 나는 시절, 부부가 되어 지낸 시절, 죽음을 초월하여 다시 만나 함께 지낸 시절 8 ㉦ 9 ㉧ 10 ㉨ 11 ㉩ 12 ㉪

1 이 작품은 한국 문학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으며, 영혼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여러 여성이 사랑을 두고 대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A]는 흥건적의 난과 그에 따른 고려의 상황에 대한 요약적 서술로, 이생과 최 씨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 죽은 영혼과의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에는 전기성이 드러나지만 [A]에서는 전기적인 사건을 찾을 수 없다.
- ㉢ [A]에는 사람들의 내면보다는 처지와 행동이 드러나 있다.
- ㉣ 사람들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성격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 ㉤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3 ㉠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도적에 저항하는 최 씨의 말로, 이생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죽은 최 씨와 이생이 재회하는 장면에서는 최 씨와 다시 행복하게 사랑을 이어 가고픈 이생의 생각이 드러날 뿐, 최 씨에 대한 미안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 최 씨는 이생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라는 최 씨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라는 최 씨의 말에서 드러난다.
- ㉤ 이생은 도적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최 씨의 말을 듣고도 옛 맹세를 잊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해 보고 싶다고 하는 최 씨에게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라고 답하고 있다.

5 [A]에는 이생과 최 씨가 만나게 된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생

이 최 씨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 '양가의 딸'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6 여기서 '휘장'은 '피륙을 여러 쪽으로 이어서 빙 둘러치는 장막'을 의미한다.

7 최씨가 말한 '세 번의 좋은 시절'은 최 씨와 이생이 사랑을 이어 가는 세 번의 만남을 의미한다.

8 최 씨의 말 중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를 통해 최 씨가 이승에 영원히 남아 있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9 최 씨의 노래는 이별을 앞둔 최 씨의 심정을 담아낸 것으로 이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한 최 씨의 원망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 '이생과 최 씨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는 주제가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 ㉡ '거울은 이별을 겪는 이생과 최 씨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 ㉢ '창과 방패가 가득한 싸움터'는 흥건적의 난을 의미하며,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는 또 다시 맞게 된 이별을 의미한다.

10 이생은 최 씨 덕분에 부모님의 유해를 수습하여 장례를 지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지만, 최 씨가 아니었으면 자신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를 통해 알 수 있다.
- ㉢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를 통해 알 수 있다.
- ㉤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를 통해 알 수 있다.

11 [A]의 '만약 제가 굳이 ~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를 통해 최 씨가 이생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를 통해 최 씨가 저승에 속한 처지를 알 수 있다.
- ㉤ 최 씨는 자신의 유해를 거두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12 결말에서 이생은 최 씨의 장사를 지낸 뒤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었으므로, 최 씨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2 쉽게 씌어진 시

내용 확인하기

44쪽

1 ⑤ 2 ④ 3 ② 4 ④

1 화자는 밝아질 미래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실을 극복할 의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육첩방', '학비 봉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9연에 드러난다.

2 이 시의 화자는 시인을 '슬픈 천명'이라고 생각하며, 시가 쉽게 써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시대처럼 올 아침'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5연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육첩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 ㉓는 자아 성찰을 통해 성숙한 자아가 현실적 자아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4 ㉠, ㉡, ㉢은 현실적 자아를 ㉣, ㉤은 성찰을 통해 성숙한 내면적 자아를 의미한다.

소단원 평가

45~48쪽

1 ① 2 ① 3 첫 번째 이별: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 두 번째 이별: 최 씨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4 ④ 5 ②

6 ① 서술형은 이렇게 최 씨는 사랑에 있어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7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8 ④ 9 ① 10 ② 11 ① 12 ④ 13 ④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시인, 무기력한(소극적인) [2단계] 일제 강점기 [3단계]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민족 현실 속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시인으로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1 최 씨는 이생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지만, 이생을 살리기 위해 도적을 유인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②, 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2 죽은 사람인 최 씨와 산 사람인 이생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설정은 전기적인 요소이다.

3 첫 번째 이별은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이고, 두 번째 이별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최 씨가 죽어서 겪은 이별이다.

4 ㉠의 달빛은 최 씨가 나타나기 전의 배경으로, 죽은 최 씨가 이생 앞에 나타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배경 묘사이지만,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② '달빛'은 '고난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 ③ 들보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5 해당 부분은 최 씨와 이생의 대화를 통해 최 씨가 죽게 된 경위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가 두드러진다.
- ⑤ '담장', '아무 산 아무 골짜기'라는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지만 이는 가난한 처지와는 관계가 없다.

6 [A]의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를 통해 최 씨가 이생과의 사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7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이라는 제목은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으로 [A] 부분에 제목의 유래가 드러나 있다.

8 '삼생'에 대한 언급은 최 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9 해당 부분은 최 씨와 이생의 세 번째 이별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는 최 씨의 이름이 귀신의 명부에 실린 탓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결말에서 이생이 죽지만 다시 재회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를 통해 알 수 있다.

10 [A]에서 이생은 부모에 대한 예를 갖추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최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 가자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소설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⑤ ‘운명의 법도’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생이 아니라 최 씨이다.

11 <최척전>은 전란으로 인한 이별과 재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생규장전>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최척전>은 <이생규장전>과 달리 행복한 결말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전기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③ 최척전에도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등장한다.
 ④ 옥영이 최척에게 시를 쓰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이 시에는 무기력한 자아가 성찰을 통해 성숙한 자아로 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계기가 ‘외부 상황의 변화’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한다.
 ② 1연과 8연에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③ ‘침전’이라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무기력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3 ㉠의 ‘나’는 자아 성찰을 통해 성숙한 자아를 의미하며, ㉡의 ‘나’는 성찰 전의 현실적 자아를 의미한다. 마지막 연에서 ㉠이 ㉡에게 악수를 건네는 것은 이 분열된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⑤ 학비 봉투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 홀로 침전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이 시에서 화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이자 시인이다. 화자는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가고 침전하는 스스로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 2단계 : <조건> 확인 및 적용

이 시에서 ‘밤’, ‘어둠’ 등의 시어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시인의 생애를 생각할 때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이 속에서 무기력하게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며 침전하는 등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 |
| 무기력하게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며 침전하는 등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 3 |
|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만 언급한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출제 의도상 화자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학 활동의 이해

작품 1 스노우맨

내용 확인하기

51~54쪽

1 ⑤ 2 ① 3 ④ 4 ⑤ 5 ④ 6 ③ 7 ④ 8 ③
9 ② 10 ③ 11 유 대리와 남자의 상사 12 ④

1 남자는 눈을 파는 노동에 지쳐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눈 속에서마저 잠들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어제 눈 속에서 잠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④ ‘앞부분 즐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하였다.
- ③ 중국집 광고지를 본 남자는 ‘입 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고 하였다.

2 ‘중국집 스티커’를 발견한 남자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며,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도 짜장면이 배달되는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연결된다.

3 남자는 전화를 걸면서도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집에서 전화를 받으니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4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전지적 서술자는 남자의 시각과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남자를 둘러싼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남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5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 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푹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라는 부분에서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자’가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남자는 컵물을 줄줄 흘리며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어 치웠다. 또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③ ‘통화하면서 나는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6 ‘안전모를 쓴 사람’은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중년의 사내로, 눈을 빠르게 파내며 남자에게로 다가온다. ‘쿠편’은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손님들에게 다음번에도 배달을 시켜 달라는 의미로 흔히 주는 것으로, 여기서는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이것이 눈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남자는 눈을 어떻게든 파헤치고 회사로 가고자 하고 있으므로, 남자에게 눈은 시련을 주는 존재이다.

오답 풀이

- ①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삼을 움직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소리의 진원지는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뺏뺏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8 빨리 출근하라는 내용의 연락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9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푹 터져서 피가 절끔 새어 나왔다.’를 통해 눈에 파묻혀 웃고 있는 눈사람의 모습이 힘든 상황(눈) 속에서도 웃음 지으며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눈 속에 묻힌 유 대리는 양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유 대리 역시 남자와 같이 출근하던 중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알게 된 남자는 자신도 유 대리와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좌절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11 ㉠ 이전에 남자가 유 대리에게 한 말인 ‘이봐.’나 ‘일어나.’와 같은 말은 큰따옴표 없이 제시되고 있다. 유 대리의 휴대 전화 벨소리에 이어 ㉠이 제시되고 있고, 남자가 유 대리의 전화를 귀에 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은 남자와 유 대리의 상사의 목소리임을 추론할 수 있다.

12 ㉡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이러지는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오답 풀이

- ①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② 대기만성(大器晩成):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⑤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

작품 2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내용 확인하기

56쪽

1 ⑤ 2 ① 3 ⑤ 4 ④

- 1** ‘해는 기울어’, ‘어둠’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리라’, ‘갯지’라는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사뿐사뿐’, ‘폴짝폴짝’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고양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는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윤기 짙짙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와 같은 시구를 통해 고양이의 생명력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2** ㉠~㉢은 모두 고양이의 야생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들이며 ㉣은 인간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 3** ‘거센 바람, 찬비’는 고양이에게 닥칠 시련을 의미하며, ‘털 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이라는 시구는 그와 같은 시련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다.
- 4**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소망을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57~60쪽

- 1 ④ 2 ④ 3 ⑤ 4 ⑤** 서술형은 이렇게 ‘눈’은 남자와 같은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압박, 삶의 부담감을 의미한다. **5 ① 6 ① 7 ② 8** 자신도 유 대리와 같은 처지라는 절망감 때문에 말문이 막힌 것이다.
- 9 ⑤** 서술형은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관찮은 듯이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10 ① 11 ④ 12 ①**
- 13 1** 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고양이, 벌판(뜰판) [2단계] 앓으리라, 리라 [3단계] 이 시의 화자는 ‘리라’라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뿔마루’를 벗어나 ‘벌판’을 내딛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에 시각적인 대비가 나타나 있다.
② ‘중국집 스티커’의 발견을 계기로 새로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③ 폭설이 내려 오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과장된 설정을 통해 현대인의 고된 노동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 특정한 이름이 없이 ‘남자’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빨리 안 오고 뭐 해.’라는 과장의 재촉 문자를 받으며 남자는 회사를 향해 눈 속을 헤쳐나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눈을 파고 있다.
② 과장은 남자를 압박하지만 남자의 미래를 생각해 주고 있지는 않다.
③ 남자는 빨리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약속과는 관계가 없다.
⑤ 중국집 주인은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대로변에 있는 남자에게 짜장면을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남자는 이러한 통화 내용을 비현실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므로 중국집 주인이 남자에게 현실의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오겠다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남자가 장난이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이다.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통화 내용이 믿기지 않아서 ㉢과 같이 생각한 것이다.
- 4** <보기>의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

는 압박을 의미한다.’를 참고할 때,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푹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 가는 부담감에 초조함을 느끼는 남자의 심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5 눈 속에 파묻힌 사람에 대해 ‘양복 옷웃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와 같이 외양을 묘사하여 노동에 매몰된 현대인의 비극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간결한 문체는 자주 보이지만 이를 통해 가벼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 편집자적 눈평은 찾을 수 없다.

6 ‘디스토피아’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기계적인 노동과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7 ‘신속 배달’이라고 적힌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해내야 하는 현대인의 기구한 운명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눈이 밀가루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눈을 쉽게 치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눈밭에서 발견된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를 통해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남자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치우고 있다.
- 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몽개지는 것은 남자의 눈이 감기고 있기 때문이다.

8 (라)에서 남자의 말문이 막힌 것은 자신도 유 대리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9 <보기>의 눈사람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웃고 있다. 이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괜찮은 듯이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10 이 시의 화자는 고양이로 다시 태어났을 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살금살금’, ‘폴짝폴짝’ 등의 다양한 부사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슬픔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해는 기울어’를 통해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만 이를 계기로 화자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 ④ 인간의 보살핌이 닿는 공간과 야생적인 공간이 제시되어 있을 뿐,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파괴된 자연이나 그에 대한 연민은 찾아볼 수 없다.

11 화자는 고양이가 되어 별판에 홀로 남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보잘것없는 남가리라도 아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대자연이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 배려한 것이라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12 <보기>의 고양이는 털과 눈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을 뿐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 있지 않다.

1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이 시의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나 너른 별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2단계 : <조건> 확인 및 적용

‘뒷마루’는 인간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공간인 반면, ‘별판’은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다. 화자는 ‘뒷마루에서 즐지 않으리라.’라는 다짐을 하며 ‘너른 별판으로 나아가리라.’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리라’라는 어미의 반복 사용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히 서술한 경우 | 5 |
| ‘리라’라는 어미의 반복 사용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조건>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3 |
| ‘리라’라는 어미가 지니는 의미만을 단순히 서술한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시어의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여, 두 시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라’가 의지를 드러내는 어미라는 점을 이해하고, 두 시어와 관련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드러나도록 서술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3)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작품 1 저녁에

내용 확인하기

63쪽

1 ⑤ 2 ⑤ 3 ④

1 이 시의 2연에는 이별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이에 따른 괴로움이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별, 밝음, 어둠' 등 시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1연의 '내려다본다'와 '쳐다본다'를 통해 별과 '나'의 관계 형성을 그리고 있다.
- ③ 3연의 '정다운'이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관계와 관계의 소멸, 이별 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별과 '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2 여기서 ㉠은 별을, ㉡은 별과 관계를 형성한 화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선택된 존재이다.

오답 풀이

- ① 2연에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 밤하늘에서 빛나는 존재이기는 하나, 깊은 밤을 사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2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 ㉡ 모두 서로에게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 ③ 별과 '나'의 정다운 관계는 서로를 보는 것으로 맺어졌다. 진취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모습은 둘 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 ④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자연물은 별이다.

3 '저녁'은 1연의 상황처럼 별도 '나'를 볼 수 있고 '나'도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2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내용 확인하기

65~68쪽

1 ② 2 ④ 3 ⑤ 4 ② 5 ⑤ 6 ④ 7 ④ 8 ②
9 ② 10 ③ 11 ① 12 쓰러진 꽃

1 작품에서 아버지를 '난장이'라는 신체적 불구 상태로 설정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작품에서 난장이의 신체적인 변화와 위기 극복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⑤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신체가 불편한 인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계가 없다.
- ④ 이 작품에서는 부부의 정보다는 소외 계층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2 영호는 부모님 앞에서 버릇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지만, 어머니가 이에 대해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뭘 좋은 일 볼 거라고 맨날 집구석에 기어들어 와.'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영호는 볼품없는 밥상 차림을 보면서 고기 좀 먹자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서 주겠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 형 지 동생은 착실하게 일하는데 저만 뭐가 그리 잘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영호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쁜 놈,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야?'라는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통장이 '철거 계고장'을 난장이 가족에게 전달함으로써 난장이 가족의 비극적 상황이 심화된다.

3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른다. '얽힌 데 덮친 격'이라는 관용어와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 ② 금란지교(金蘭之交):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 ③ 금의환향(錦衣還鄕):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낙화유수(落花流水): 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봄의 경치를 이르는 말. 또는 살림이나 세력이 약해져 보잘것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공간, 인원 등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이 작품은 드라마 대본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5 어머니는 싹짓돈을 세다가 철거 계고장을 보고 한숨을 쉰다. 이는 철거 계고장에 대처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답답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에서 어머니는 자식들이 아닌 철거 계고장에 적힌 내용을 걱정하고 있다.
- ②, ④ 통장은 통의 대표로, 철거를 주도하는 인물이 아니며 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다.

6 ‘클로즈업’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이다. 공장에서 일하던 영희는 고된 노동에 잠깐 졸다가 조장에게 팔을 옷핀으로 찢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작업복에 피가 묻어난다. 이것은 영희가 노동자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여기서 영희의 작업복에 묻은 피를 클로즈업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 ① 영희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②, ③ 조장은 영희를 비롯한 졸고 있는 여공들의 팔을 옷핀으로 찢으며 그들의 잠을 깨우고 있다. 이는 공장의 방침에 따라 생산을 위해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영희와 조장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팔에서 피가 난 것은 영희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조장이 옷핀으로 영희의 팔을 찢렀기 때문이다.

7 영희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 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영희와 파마 아줌마가 잠 깨는 약을 먹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노동자들은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새벽에도 일하고 있다.

8 파마 아줌마는 밤 근무에 대해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을 관두려고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영희가 파마 아줌마를 만류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 ① ‘야, 찢린 데는 괜찮냐?’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밝은 얼굴로) 그래도 다음 주엔 낮에 근무하는 거네?’를 통해 알 수 있다.

9 ‘행복동’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난장이 가족의 현실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도시 빈민

의 힘든 삶을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0 ㉠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인 난장이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집 앞의 건물은 이미 헐려 있으며,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라는 것은 이미 행복동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12 ‘쓰러진 꽃’은 난장이 가족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가족의 소망을 상징한다.

소단원 평가

69~72쪽

1 ④ 2 ② **서술형은 이렇게** 이 시의 화자는 정다운 관계를 맺은 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3 저녁은 별과 ‘나’가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4 ③ 5 ⑤ 6 ① 7 ② 8 클로즈업 9 가난하고 힘든 도시 빈민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난장이’로 설정하였다.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1 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쓰러진, 난장이 가족 [2단계] 철거, 흙무더기 [3단계] (라)에서 꽃은 난장이 가족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꽃이 쓰러져 있는 것은 난장이 가족의 삶의 터전인 행복동이 철거로 인해 흙무더기가 되어 가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철거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영희가 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난장이 가족이 행복을 되찾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행동이라 볼 수 있다.

1 2연의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는 대구를 이루며 ‘나’와 별의 이별을 표현하고 있다.

2 ‘나’는 별과 이별하고 있지만 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④, ⑤ 1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3연에는 별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3 저녁은 별과 ‘나’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저녁은 ‘나’와 별이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적 배경임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저녁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라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 2 |

4 <보기 1>에서 화가는 그림과 다정한 얼굴들을 생각하며 점과 선이 무수히 반복되어 찍혀지는 점묘화를 그렸다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점과 선의 무수한 반복은 '만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이 작품에서는 별과 '나'가 맺는 관계를, <보기>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나'와 '너'가 맺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6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공간적 배경에 따라 장면이 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장면 번호(S#)로 표현되고 있다.

⑤ 난장이 가족이 받은 철거 계고장을 통해 공간적 배경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 동네임을 알 수 있다.

7 '돈'은 영호가 갈구하는 대상이며, 어머니 역시 가족의 상황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어머니가 돈을 불결하게 생각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아이고, 이거 먹고 힘쓰겠나, 어디. 아이, 고기 좀 먹고 삽시다, 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난장이 가족은 철거 계고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④, ⑤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난장이 가족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8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을 '클로즈업'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인 '철거 계고장'을 클로즈업하여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9 '난장이'라는 신체적 불구 상황은 경제적으로 불구인 난장이 가족의 상황을 드러낸다. 즉 1970년대 도시화 속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극적인 처지를 '난장이'라는 설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아버지가 '난장이'로 설정된 이유를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처지와 연관시켜 서술한 경우 | 5 |
| 아버지가 '난장이'로 설정된 이유를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처지와 연관시키지 않은 경우 | 3 |
| '불쌍한 처지를 강조하려고' 정도로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 1 |

10 난장이 가족은 1970년대 도시 빈민 계층으로 도시 계획에 따른 철거로 인해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영수는 생각이 깊은 인물로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나)에서 영호는 철거 계고장에 담겨 있는 철거 계획에 화를 내며 '에휴, 미련 없이 뜨는 거야, 미련 없이. 행복동, 이름부터가 웃겼다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철거 통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다)에서 난장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난장이의 모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⑤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들 짝 빼입고 와서는, 허가 내준다고, 정식 허가 내준다고. 어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쉽게 그러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12 (다)에서 집을 철거당하게 될 위기에 놓인 영호가 답답한 마음에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는 모습에서 영호의 반항적이고 거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13 (가)에서 시계가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시계를 볼 수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 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공장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였다.

③, ⑤ 조장이 옷핀으로 영희의 팔을 찌르는 행동을 통해 비인간적인 노동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라)의 '걸어가던 영희 눈에 쓰러진 꽃이 보인다.'에서 '꽃'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철거 계고장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난장이 가족의 모습과 관련지어 볼 때, '꽃'은 난장이 가족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단계 : <조건> 확인 및 적용

(라)에서 행복동의 상황을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난장이 가족이 받은 철거 계고장과 관련지어 볼 때, 철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영희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여 적절히 서술한 경우 | 5 |
| 영희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였으나 <조건> 두 가지 중 하나만 반영한 경우 | 3 |
| 영희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였으나 <조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라)의 영희의 행동이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는 것임을 파악하여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대안문 풀이

73~79쪽

1 ⑤ 2 ③ 3 ① 4 ② 5 ③ 6 ② 7 ④ 8 부정적인 시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9 ② 10 ③
11 '뿔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는 인간의 보살핌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12 ① 13 ② 14 직장 상사 15 ⑤ 16 ③
17 ③ 18 ② 19 ④ 20 동이가 들고 있는 채찍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들려 있는 것을 허생원이 발견하는 부분 21 ⑤

1 (가)에서는 최 씨와 이생 사이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애정 관계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부도덕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대화를 위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나)에서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나)에서 동리자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A]는 이생과 이별하면서 이생에게 올리는 최 씨의 노래로, 슬픈 감정이 드러나 있으며, [B]는 동리자의 부탁을 받아 북곽 선생이 글을 읽는 부분이다.

3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④ 북곽 선생은 과부의 집에 출입하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인물이 아니다.
- ⑤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4 유교 관련 책을 저술하는 것으로 이름난 북곽 선생은 실은 자신의 삶에서는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명분뿐인 선비이다.

5 <보기>의 범은 북곽 선생을 꾸짖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북곽 선생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6 (가)에서는 '밤비가 속살거린다'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7 (나)의 화자는 거울을 닦는 행위를 통해 자아를 성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청자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시인을 '슬픈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② 마지막 연의 '약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내일이나 모레나'를 통해 미래의 가정을 확인할 수 있다.

8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에 부끄러움의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가)에서 화자가 시가 쉽게 씌어지는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 |
| (가)에서 화자가 시가 쉽게 씌어지는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경우 | 2 |

9 (가)에서는 '사뻐사뻐', '폴짝폴짝'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고양이의 움직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리리'를, (나)는 '되고 싶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를, (나)는 '되고 싶다'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대화 형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는 '고양이', (나)는 '꽃'이라는 자연물을 제재로 삼고 있으나 자연 친화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다.

10 (가)의 '고양이'는 뿔마루를 멀리하며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나)의 '꽃'은 이름 부르기(인식)라는 소통을 통해 성립되는 존재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거센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가 맞지만 ㉡은 현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존재라고 보기 힘들다.
- ⑤ ㉠과 ㉡ 모두 미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뿔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는 사람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벌판'에서 고양이가 되어 뛰놀기를 소망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뒷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의 공통된 의미를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 |
| '뒷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의 공통된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
|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뒷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의 공통된 의미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1 |

12 '라디오'는 의미를 지니기 전의 존재로 (나)의 '몸짓'에 해당하는 시어이다.

오답 풀이

- ② <보기>의 1~2연은 (나)의 1~2연과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버튼을 눌러 전파가 되듯이, (나)에서는 이름을 불러 꽃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④ (나)의 '꽃'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 변주되었고, <보기>의 '전파'는 '사랑'으로 변주되었다.

13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를 통해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희망적인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눈'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현대인이 노동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람을 발견하여 눈을 파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남자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4 (가)에서 남자는 과장으로부터 출근을 재촉하는 문자를 받고, 이것은 압박이 되어 남자가 기계적으로 삽질을 하게 만든다. 유 대리 역시 남자처럼 회사에 도착하지 못하고 출근을 서둘렀으며 이 때문에 눈 속에 파묻힌 것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인물은 직장 상사라고 추측할 수 있다.

15 ㉞는 고된 노동 속에서 피곤한 나머지 눈 속을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를 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상사는 남자의 출근을 재촉하는 인물로 남자가 극한의 상황에서 눈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 ③ 양복 차림으로 보아 눈 속에 묻힌 사람 역시 남자와 마찬가지로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6 1연에서 대구를 통해 만남을 표현하며 2연에서 대구를 통해 이별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통해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어 있으나 이는 별과 화자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희망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17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별과 '나'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때이며 밤이 깊거나 아침이 되면 둘은 이별을 맞게 된다.

18 이 시에서 화자는 이별한 '별'과 재회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보금자리를 잃은 비둘기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③ '별'은 화자를 바라보는 존재이지만, 화자가 '비둘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비둘기'는 개발로 인해 번지를 잃고 갈 곳을 잃었으나,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진 것일 뿐 갈 곳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19 (가)는 무허가 주택촌의 모습을, (나)는 메밀밭의 모습을 묘사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에는 대화만 드러날 뿐 이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 ⑤ 두 작품 모두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가)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20 '클로즈업'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극의 전개상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에 적용한다. 동이가 왼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은 허 생원이 동이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믿게 되는 요소로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 [A]와 <보기> 모두 영호와 영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③ <보기>에서는 영호의 시점에서 영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보기>의 '형은 화가나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작품 1 제가야산독서당

내용 확인하기

83쪽

1 ㉓ 2 ㉔ 3 ㉑ 4 ㉒

1 이 작품은 통일 신라 말기의 학자인 최치원이 쓴 한시로, 서민들의 삶이 애환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1, 2구에 외적 상황이, 3, 4구에 내면세계가 드러나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선경후정(先景後情)'이란 먼저 경치에 관한 묘사가 나타나고, 뒤에 정서적인 부분이 제시 되는 시의 전개 방법을 말한다.
- ②, ④ 기(起)·승(承)·전(轉)·결(結)의 4구로 이루어지며 7자로 된 한시를 7언 절구라고 한다. '기승전결'이란 한시의 구성 방법의 하나로, 기는 시를 시작하는 부분, 승은 그것을 이어받아 전개하는 부분, 전은 시의(詩意)를 한 번 돌리어 전환하는 부분, 결은 전체 시의를 끝맺는 부분이다.
- ⑤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속세(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2 이 작품은 돌, 산, 물 등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ㄴ). 또한 인간의(시비하는) 소리와 자연의(호르는 물) 소리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ㄷ).

3 온 산을 둘러싸고 흐르는 물소리 덕분에 화자는 사람들이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㉑은 화자를 대상으로부터 단절시켜 주는 존재이다.

4 ㉓, ㉔, ㉑은 자연에 해당하는 시어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고 ㉒와 ㉕은 속세에 해당하는 시어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작품 2 황진이

내용 확인하기

85~87쪽

1 ㉓ 2 ㉔ 3 ㉑ 4 ㉒ 5 ㉓ 6 ㉔ 7 ㉑ 8 ㉒ 9 ㉓ 10 ㉔ 11 목석과 같은 여인

1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분단으로 인해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분단 이후의 북한 문학과 재외 국민이 한국어로 창작한 작품인 한민족 문학에 해당하므로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③ 북한에서 활동하는 작가 홍석중이 쓴 소설이다.
- ④ 조선 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황진이'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쓴 소설이다.

2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나 갈등까지 모두 서술한다.

3 ㉑의 뒤에 이어지는 '남의 경사나 기쁜 일을 구경하고 즐긴다면 모르겠지만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구경해서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벌써 선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죽은 이에 대한 애도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슬픈 죽음을 한낱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4 ㉑은 '황진이'가 남들의 시선에 맞서 자신이 직접 나가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황진이'가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5 [A]는 상두군들이 상여를 옮기며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으로 '황진이'의 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외기러기 짝사랑'이라는 말을 통해 망자의 한을 알 수 있다.
- ② 상두군들의 노랫소리를 통해 전통적 상례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④ 소설 중간에 운문 형식의 노래를 인용해 넣음으로써 형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 ⑤ '황진사 댁 고명따님', '외기러기 짝사랑', '외로운 훈' 등을 통해 상여가 황진사 댁 후원 뒷문 앞에서 멈춘 이유를 알 수 있다.

6 상두수변은 망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㉑은 망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7 구경군들은 죽은 혼백이 무서워 '황진이'가 멀리 달아났거나 집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황진이'가 상여 앞에 당당하게 나오자 그것을 본 구경군들이 깜짝 놀란다.

8 '말밥'은 '줄지 못한 이야기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남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눈앞에 보이거나 떠오르는 모양 따위가 좀 희미한 가운데 은근하면서도 뚜렷하다.'라는 뜻의 북한어이다.

②, ③, ⑤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북한어의 특성이 드러난다.

9 (마)~(바)에서 '황진이'는 죽은 총각을 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목석 같은 여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0 [B]는 '황진이'가 죽은 총각의 한을 달래려는 의도로 한 말로, '황진이'가 죽은 총각을 무시했다거나 사과를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1 ①의 바로 앞에서 '황진이'는 '목석 같은 녀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작품 3 나도 그들처럼

내용 확인하기

89쪽

1 ② 2 ③ 3 ③ 4 ④

1 이 작품은 생명력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2 이 작품에서는 '~습니다'와 같이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가 말을 거는 대상은 시적 대상이 아니므로 경어체 사용은 대상에 대한 존중감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ㄱ. 나는 ~ ㄹ 수 있었습니다 / 내가 ~ 되기 전에는'과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ㄴ. 1~5연은 1행과 2행의 순서를 뒤바꾸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ㄷ. '자연적인 삶'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시어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시어가 대조되고 있다.

3 ㉠, ㉡, ㉢, ㉣과 달리 ㉤은 자연에 해당하는 시어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들의 말'은 '바람의 말', '비의 말', '별의 말', '대지의 말', '숲의 말'을 가리키는데, 화자는 합리적, 이성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면서부터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90~94쪽

1 ⑤ 2 ④ 3 ③ 서술형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불안과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서기보다는 자연에 은거하고 싶었을 것이다. 4 '흐르는 물'은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대조를 이루어,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5 ② 6 ①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③ 14 ④ 서술형은 이렇게 화자는 합리적인 분석 행위로 난해해진 삶에서 벗어나 생명력 충만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16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부동산, 자연 [2단계] 생명력, 예찬, 긍정적 [3단계] ㉠과 ㉡은 모두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을 상징하고 있으며,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 이 작품은 통일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지은 7언 절구의 한시로 한자로 표기되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말을 기록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창작된 문학 작품도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 이 작품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한시로 한문 문학에 해당한다. <보기>는 말로 전해져 온 전설로 구비 문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예', '인지'와 같은 군말이 나타난다.

② 이 작품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한문 문학이고, <보기>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 말로 전승된 구비 문학이다. 한문 문학과 구비 문학은 모두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③ 이 작품의 작가는 최치원이다. <보기>는 말로 전승된 구비 문학으로 작가를 알 수 없다.

⑤ 이 작품은 7언 절구의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지어졌으나, <보기>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에 따라 내용이나 형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3 '사람 말소리가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는 겹겹 봉우리에 싸여 속세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랜 유학 생활로 의사소통이 힘들어졌다는 내용은 이 작품과 <보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4 '흐르는 물'은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는 존재로, 화자가 꺼리는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자연의 소리를 의미한다.

5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와 같이 인물의 행동과 '그래, 그렇다면 응당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모두 서술하고 있다.

6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당대의 풍속을 재현하여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방상시, 명정, 만장’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 때 쓰이는 소재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여 당대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7 ‘답장 너머는 구경꾼들로 붐비는데 집 안은 괴괴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고요한 ‘황진이’의 집 안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8 ‘황진이’가 직접 나선 것은 죽은 총각에 대한 애처로운 심정과 함께 더 이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상목필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사람들이 그네뛰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은 험담과 숨은 비밀이 상두수변의 선소리를 통해 나와서 ‘황진이’의 체면이 깎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 ‘진이는 문을 열었다. ~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에서 구경꾼들이 자신들의 예상과 다른 ‘황진이’의 행동으로 매우 놀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놈이’가 주인아씨한테 발목을 묶이운 채 ‘우리 안에 갇힌운 범마냥 왔다 갔다 하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황진이’가 격정이 되지만,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황진이’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맞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서고 있다.

③, ⑤ 상직할멈과 ‘이금이’에 대한 서술은 ‘상직할멈과 이금이’가 등 뒤에서 간을 졸이며 공포에 질린 눈길로 주인아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부분에만 나타나는데, 여기서 상직할멈은 ‘황진이’를 말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금이’가 공포에 질린 이유는 주인아씨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두려워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0 상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망자의 한이 풀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망자가 품은 한은 상두수변의 먹입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1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으로 대립에서 선인이 승리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음으로써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작품은 ‘황진이’와 ‘놈이’의 비극적 사랑과 조선 시대 지배 계층의 허위식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놈이’는 작가가 창조해 낸 허구적 인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황진이’는 기생이 되어 ‘거짓과 위선에 찬 양반과 승려를 조롱하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살아간다.’라고 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상례 풍속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북한 소설가가 창작한 소설로, ‘류두날’, ‘슬란치마’와 같은 북한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한의 표준어와 동일한 말도 많이 나타난다.

12 ‘황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채 쓸쓸히 죽은 총각의 처지를 공감하며,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다.

13 ‘유명(幽明)’은 어둠과 밝음이라는 뜻으로 저승과 이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4 화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부터 자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가 되찾고 싶어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1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공통적인 속성 찾기

‘대지’는 이어지는 행의 ‘부동산’과 서로 대립하는 시어이고, ‘갯쪽부쟁이 한 무더기’는 ‘지삿개’에 있는 자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지닌다.

■ 2단계 : 화자의 공통된 태도 찾기

(가)의 화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대신 자연적 생명이 충만한 삶을 지향한다. (나)의 화자는 지삿개의 자연물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표현하여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화자는 모두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대상의 공통적 속성과 화자의 태도에 나타난 공통점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 5 |
| 공통적 속성과 태도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 3 |
| 공통적 속성이나 태도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 2 |

[감점 피하기 tip] 시어의 공통적 속성이나 화자의 태도에 나타난 공통점을 확인할 때에는, 각 시어의 의미나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 후 두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을 찾아야 한다. 가령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와 대상을 동경하는 태도는 모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묶을 수 있다.

(2)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작품 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용 확인하기

97쪽

1 ① 2 ⑤ 3 ⑤ 4 ①

- 이 작품은 국권 상실이라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시로 삶의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② ‘들, 보리밭, 논, 지심’ 등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서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2연과 10연, 3연과 9연에서 같은 형태를 지닌 연이 대칭 구조를 이루며 나타나 있다.
④ 1연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11연에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대답으로 끝맺고 있다.
⑤ ‘빼앗긴 들’은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우리 조국을 상징한다.
- 마지막 연의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표현에 봄을 맞이하였으나 국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봄까지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고운 비’에서 ‘비’는 보리를 자라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리’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보기〉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대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빼앗긴 들’은 우리 국토의 일부인 ‘들’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작품 2 변신

내용 확인하기

99~101쪽

1 ③ 2 ① 3 ② 4 ② 5 ③ 6 ② 7 ④ 8 ③
9 ①, ② 10 ①

- 주인공은 여행을 다녀야 하는 자신의 직업을 ‘고달픈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는 것은 비현실적 사건이다. 작가

는 이 사건을 통해 ‘그레고르’가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소외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우중충한 날씨’는 벌레로 변해 버린 주인공의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게 한다.
-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일과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했지만 본래의 성격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하고 방에서만 생활한다. 하지만 이것은 벌레로 변해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지 ‘그레고르’가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단절시키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다.
- ‘그 작자들은 그제야 일어나 앉아 아침을 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을 통해 다른 출장 영업 사원들이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저것’은 벌레로 변해 버린 ‘그레고르’를 가리키는 말로, 주인공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가족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 주인공의 변신 이후 외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①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펼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①에서는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통과 관계, 따뜻한 정서가 나타난다.
②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기 전까지 주인공은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정상적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왔다.
④ ①에서 주인공은 더 이상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구박을 받는 존재가 된다.
⑤ ①, ②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변신’은 인간 소외, 인간성의 상실, 부조리한 현실 세계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레고르’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벌레로 변했을 때도 가족을 생각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여동생에게서 자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섭섭하고 비참한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죽자 가족들은 평온함을 느끼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결말은 상대방을 대할 때 인격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소외시키는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1 ④ 2 ③ 3 ③ **서술형은 이렇게** 1연은 단순히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는 차원의 담담한 어조이지만 11연은 식민지 현실에 대해 깊고 처절해진 재인식 차원의 단정적 어조이다. 4 ④ 5 ② 6 ③ 7 ④ 8 ③ 9 ⑤ 10 부모님에게 빛이 있어서 이를 갚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11 ②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변신, 관계, 소외 [2단계] 비판, 소외, 인간성 [3단계] 주인공은 벌레로 변신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소통이 단절되며, 관계가 끊어지고, 냉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변신'은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등의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상징한다.

- 1 이 작품은 봄을 맞은 조국의 모습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여 주며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비극적 현실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의 주체는 '보리밭'으로 의인화된 표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전통적 풍습이 표현된 것은 아니다.
- 3 7연에서 '나비'와 '제비'에게 '깎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봄이 온 세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만끽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㉞은 민족이 다 함께 가지 못하지만 혼자라도 기꺼이 광복을 위해 나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좌절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 5 '웃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푸른색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ㄱ). 또한 웃음과 설움을 나열하여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ㄷ).

오답 풀이

- ㄴ. 푸른 웃음과 설움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인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 ㄹ. 화자는 봄이 온 기쁨과 빼앗긴 들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6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현실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의(寓意)'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뜻한다.

오답 풀이

- ① 작가의 상상에 의해 허구적으로 꾸며진 이야기이다.
- ② 비현실적 사건이 일어나지만 몽환적 느낌의 문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화려하고 관념적인 문체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 ④ 벌레로 변한 주인공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 주인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주인공이 과거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은 있지만 시간의 역순으로 사건을 배열한 것은 아니다.

- 7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까지 독자에게 전달해 준다. 이때 대부분의 장면에서 서술자는 주인공인 '그레고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 8 '흉측한 모습'이라고 서술된 내용으로 보아 주인공이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9 허구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의 변신이라는 사건은 독자에게 극적 긴장감을 제공하여 독자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10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신한 후에도 부모님이 진 빚을 다 갚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고 있다.
- 11 ㉠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에 '동정심과 눈에 떨 정도로 확연한 이해심'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레고르'가 아니라 여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보기>의 확인

주인공이 '변신'을 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신을 한 다음부터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된다.

■ 2단계 : '변신'의 상징적 의미

'변신'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하고,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게 한다. 따라서 '변신'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등의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보기>를 근거로 하여 '변신'이라는 사건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 5 |
| <보기>를 근거로 하여 '변신'의 상징적 의미를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3 |
| '변신'의 상징적 의미를 한 가지만 서술하고 <보기>를 근거로 하지 않은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사건의 의미를 찾을 때에는 먼저 작품 속 인물에게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독자나 사회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작품 속 인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한다면 이를 일반화, 보편화하여 독자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찾아낼 수 있다.

대단한 평가

106~113쪽

- 1 ② 2 ⑤ 3 ③ 4 ③ 5 ⑤ 6 ② 7 ③ 8 ④ 9 ⑤ 10 화자는 과거에는 바람, 비, 별, 대지, 숲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과 이웃(동무)이 되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으나 현재에는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가 되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 삶을 살고 있다. 11 ⑤ 12 ⑤ 13 ④ 14 ③ 15 ⑤ 16 ③ 17 ③ 18 ③ 19 ② 20 ④ 21 ② 22 ⑤ 23 ② 24 ③ 25 ③

1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이로부터 단절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로 표기하여 창작된 한시로 한문 문학이다. (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문학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연의 물소리와 인간의 말소리를 대조하여 자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지산개개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가)는 7언 절구의 정형시이며, (나)는 내재율을 지니고 있는 자유시이다.
- ⑤ (가)에서는 '사람 말소리가 있는 인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정서가 나타나 있다. (나)에서는 갯속부쟁이의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 있다.

2 (가)는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구체적 자연물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관념적 시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자연의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와 인간의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돌', '봉우리', '물'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세상과 단절된 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에서 계곡물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기승-전-결'의 4구로 구분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

3 '시비하는 소리'는 <보기>에서 작가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이 웃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이다. 화자는 이 소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이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싶어 한다.

4 ㉠은 바람을 버티고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체념적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산방산'은 제주도에 있는 산으로 공간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소재에 해당한다.
- ② '어화'는 고기잡이배의 등불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송송 구멍 뚫린 바윗돌'은 제주도에 많이 있는 현무암을 뜻한다.
- ⑤ '갯속부쟁이'는 화자가 예찬하고 있는 지산개의 풍경 중 하나이다.

5 이 작품은 북한에서 창작된 소설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시대의 풍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들에게 남한의 풍속을 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 의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 묘사하는 상례 의식은 조선 시대에 시행된 일반적인 상례 의식으로 기구한 사연을 지닌 망자를 위한 특별한 상례 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은 '황진이'를 짝사랑하다가 죽은 총각의 처지를 '외기러기'로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8 (가)는 인터넷에서 영상 시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음악과 동영상,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연재된 소설 작품이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디지털 시대에 따른 문학 활동의 환경 변화를 보여 준다. 하지만 (가), (나) 모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에 해당하므로 ③에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가)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공감각적 심상이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한 심상을 말한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시적 대상을 표현할 때 둘 이상의 감각이 섞여 쓰이는 경우로 시각에서 청각, 청각에서 시각 등으로 감각의 전이(轉移)가 일어나야만 성립된다.

10 (가)의 화자는 과거 '바람, 비, 별, 대지, 숲'이 상징하는 자연적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가 상징하는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 삶을 살고 있다.

11 (나)의 내용만으로 어머니가 아우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12 (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봄마저 빼앗길까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므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찾기 어렵다. 반면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너의 아프리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3 ㉠은 이상적인 조국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어이다. ㉡와 ㉢은 예로부터 살아온 이상적 아프리카의 모습이고, ㉣, ㉤는 앞으로 이어질 젊은 아프리카의 모습으로 모두 ㉠과 유사한 시어이다. 하지만 ㉤는 식민지 아프리카의 부정적 현실을 표현한 시어에 해당한다.

14 3연에서는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답다워라 말을 해 다오.'라는 표현을 통해 봄이 왔지만 빼앗긴 들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화자가 현실을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나)에서는 '말해 다오, 아프리카여.', '~ 그래의 등인가.', '~ 저 등이?'라는 화자의 질문에 '엄숙한 목소리가 대답'하는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답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대상과의 갈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6 [A]에서 '푸른 웃음'은 청각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B]에서는 '끈기 있게, 고집스럽게 자라는 열매에 조금씩 자유의 쓰라린 맛이 배어드는 저 나무가 새롭게 태어나는 너의 아프리카란다'라는 문장의 배열을 바꾸어 표현하였다.

17 주인공의 겉모습은 비록 별레로 변했지만 존재로서의 의미는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모습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가족들은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현실의 자각적 존재'로서 주인공은 변신 전과 후에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변신이 주인공의 실존을 변하게 한 것은 아니다.
- ② <보기>에서는 본질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본래적 자기를 스스로 계속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인공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실존적 가치가 달라지거나 부정적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주인공은 변신한 이후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한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관련되어 있다.
- ⑤ 실존주의는 인간의 교환 가능성과 소외 때문에 생겨난 사상이다. 별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교환적 가치는 상실했다 하더라도 실존적 가치는 그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18 이 작품에서 별레로 변신한 '그레고르'를 냉대하는 가족의 모습은, 가족을 하나의 도구로 대하는 인간성 상실의 모습

을 보여 주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희화화'란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되는 것을 말한다.

19 독일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그 지역만의 특수한 요소로 문학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언어가 다른 지역의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까닭은 그 작품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 ㉠, ㉡, ㉢, ㉤은 모두 주인공인 '그레고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은 '그레고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21 (가)는 <적벽가>의 일부로, 서사 문학의 한 갈래에 해당하지만 창으로 불리며 주로 4음보의 율격이 느껴진다.

오답 풀이

- ① (가)에 나타난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서러움, (나)에 나타난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은 모두 보편적인 정서에 해당한다.
- ③ (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 이야기를 재창조한 판소리이다.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가 외래 문화를 수용하여 재창조한 작품이다.
- ④ (가)는 한국 서사 문학의 한 갈래인 판소리이고, (나)는 파블로 네루다라는 외국인이 쓴 현대시이다. 따라서 (가)만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 ⑤ (가)는 '적벽대전'이라는 중국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나)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22 <보기>는 구전 설화로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가)는 판소리로 전문적인 전승자에 의해 전해지는 작품이다.

23 (나)에서는 질문을 나열하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정리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4 (나)의 질문들은 일상적인 자연에 대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 해당한다.

25 '아니리'는 판소리에서 창자가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대가 부르는 노래는 '창'에 해당한다.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고대 문학

작품 1 주몽 신화

내용 확인하기 117~119쪽

1 ④ 2 ② 3 ② 4 ③ 5 ⑤ 6 ⑤ 7 ① 8 ⑤
9 ② 10 ④ 11 ②

1 이 작품은 고구려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문학의 한 갈래인 신화이므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신화는 설화의 하위 갈래이며 신성성이 중시된다.
- ③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얻게 된 아들이므로 천손 강림 화소가 있다.

2 '전기적 요소'란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것을 말하는데, 왕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전기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에게 구혼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하백이 해모수에게 크게 노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4 ㉠, ㉡, ㉢, ㉣는 모두 유화를 가리키는 말이고, ㉤는 해모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5 이 작품에서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유화에게 주몽을 잉태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북방계 신화인 천손 강림형 신화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는 것은 남방계 신화인 난생 신화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화가 하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북방 지역의 신화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6 ①, ②는 (라)와 (마)에, ③, ④는 (마)에 언급되어 있으나 ⑤는 (다)~(바)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7 금와왕의 아들 대소는 주몽의 탁월한 능력이 후에 왕위를 위협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8 (자)에서 유화는 주몽이 차마 어머니 자신을 두고 떠나지 못하자 주몽을 안심시키면서 오곡의 씨앗을 주었다.

오답 풀이

- ① (아)에서 왕은 주몽이 말을 건강하게 기른 것을 보고 기뻐하며,

아원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이를 통해 왕은 주몽이 잘 달리는 말을 가지려고 일부러 그 말을 아워게 만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의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주몽이 현재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에서 유화는 '너는 어머니의 염려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몽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④ (아)에서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함께 부여로부터도 망쳤다.

9 주몽은 가장 좋은 말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말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다. 이를 통해 주몽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10 ㉠에서 주몽은 하늘의 도움을 얻어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를 건넌다. 이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의 모습에 해당한다.

11 ⑥의 '길'은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 길은 여덟 자 또는 열 자로 약 2.4미터 또는 3미터에 해당한다.

작품 2 공무도하가

내용 확인하기 121쪽

1 ⑤ 2 ⑤ 3 ③

1 물을 건너는 임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작품은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집단적 서사에서 개인의 서정으로 문학이 변화해 나갔음을 보여 준다.

2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임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3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이 ㉠을 건넌기 때문에 임과 화자는 이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화자와 임을 이어 주는 매개체는 아니다.

1 ㉠ 2 ㉠ 3 ㉠ 4 ㉡ 5 ㉢ 6 ㉠ 7 ㉢ **서술형은 이렇게**

천제의 아들의 아내인 유화는 햇빛을 받아 잉태를 하고 알(주몽)을 낳는데, 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고귀한 혈통을 지닌 주인공이 기이하게 출생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이별 [2단계] 이별, 죽음 [3단계] ㉠, ㉡, ㉢은 모두 이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 화자가 입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만들어 주는 소재로 '입에 대한 사랑', ㉡은 입이 결국 건너면서 이별하게 되므로 '이별', ㉢은 그러한 이별이 '죽음'임을 의미한다.

- 1 이 작품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와 업적을 이야기한 건국 신화이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개별적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전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2 (가)~(마)는 주몽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로, 주몽의 아버지인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어머니인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가 만나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만나 태어난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에 설득력을 획득하게 되고,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신성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된다.
- 3 해모수와 하백이 서로 같든하는 것은 해모수가 구혼조차 하지 않고 유화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이 같든은 해부루와는 관련이 없다.
- 4 ㉠은 하백이 자신의 딸인 유화를 중매도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둔 해모수를 꾸짖자, 그에 대하여 해모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해모수의 무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 5 (가)를 보면 어사 강력부추는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시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유화가 고기를 훔친 것을 강력부추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6 (다)에서 주몽이 금와왕의 아들들과 수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가)에서 어사 강력부추가 한 말을 통해 ㉡를 확인할 수 있다.
- 7 ㉠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기이한 출생을 보여 주는 장면이고, ㉡은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잘 쏘는 주몽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은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널 때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다.
- 8 주몽 일행은 강을 건널 배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해 있다. 전쟁에 나아가서 물

러지지 않음을 이르는 '임전무퇴'는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 9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한 것은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지만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주몽의 영웅적 행적을 통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신령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그것이 위대한 업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당시의 독자들은 주몽의 영웅적인 면모를 통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 ④ <보기>에서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이라고 말했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 작품을 기록해서 전한 당시에도 주몽의 신이한 능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10 '신이함'이란 신기하고 이상한 것을 이르는 말로, 주몽이 활로 쏘아 죽인 비둘기를 물을 뿜어 되살려 내는 것은 신이한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④ 신이한 성격을 지닌 일이나, 작품의 주인공인 주몽이 아닌 해모수의 신이함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 11 주몽이 몰래 좋은 말의 허뿔리에 바늘을 찌러 놓은 것은 말을 야위게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책이었다.

- 12 (가)에서는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이별의 이유가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이별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내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직접 드러난다.
- ② (가)와 (나)는 각각 백수 광부의 아내와 유리왕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 ④ (가)는 '아내가 만류함. - 백수 광부가 강을 건넌. - 백수 광부가 물에 빠져 죽음.'이라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⑤ (가)의 1행은 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고, (나)는 독백으로 서술되어 있다.

13 (가)와 (나)의 ㉔에서는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으나 입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물을 건너려는 임의 모습을 통해, (나)에서는 피꼬리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② (가)에는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에 있는 대상이 등장하지 않으나 (나)의 ㉔에서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되는 정다운 새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 ③ (나)의 ㉔에서는 '외로워라'라는 말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입과 이별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픈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14 (가)에는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이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1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공통적 의미 발견

입이 물을 건너게 되면 화자와 임은 서로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자는 입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 2단계 : 각 행의 개별적 의미 발견

1행에서 화자는 물을 건너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2행에서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은 물을 건넌다. 입이 물을 건너는 것은 결국 화자와 임의 이별을 의미한다. 3행에서 화자와 임은 단순한 이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의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물'의 공통적 의미와 각 행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물'의 공통적 의미 및 각 행의 개별적 의미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3 |
| '물'의 공통적 의미 및 각 행의 개별적 의미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물'의 의미를 단순히 암기하기 보다는 각 행에서 다양한 의미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어의 의미를 서술할 때에는 작품 자체에서 그렇게 해석한 이유를 찾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세 문학

작품 1 찬기파랑가

내용 확인하기

129쪽

- 1 ② 2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기파랑의 높은 절개) 3 ⑤
4 ②

1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로 '4행-4행-2행'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③ 신라 시대의 향가로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
- ④ 작가는 충담사라는 승려이며, 고도의 상징으로 서정성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⑤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2 화자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다. '잣나무 가지'는 이러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또는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의미한다.

3 이 작품의 화자는 '일오내 자갈 별'에서(ㄱ)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하고 기파랑을 추모하면서(ㄷ, ㄹ), 기파랑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ㄴ).

4 [A]는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인 낙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감탄사를 사용한 이 부분을 통해 시상을 압축하여 정서적으로 고양하며, 구조적 완결성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시상의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운도 남기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낙구의 첫 부분에 감탄사 '아야'가 사용되었다.
- ⑤ 10구체 향가의 낙구는 시조의 종장 첫 음절에 3음보를 사용하는 형식적 특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2 청산별곡

내용 확인하기

131쪽

1 ④ 2 ⑤ 3 날아가던 새로 보거나 같던 사래(밭이랑)로 해석하기도 한다. 4 ⑤

1 이 작품에서는 ‘ㅇ, 르’와 같이 가볍고 부드러운 음운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4연 ‘이링공 더링공 흐야 ~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외로운 밤이 더욱 고된 시간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연에서 화자는 ‘술’을 통해 일시적으로 고뇌를 해소할 뿐 이를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우러라 새여 /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호리라’ 등을 통해 화자는 삶의 비애와 고독을 표출하고 있다.
- ② 2연 ‘널라와 시름 한 나도’와 같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작품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청산’과 ‘바를’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다. ‘청산’과 ‘바를’은 피난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난 이상향으로 볼 수도 있다.
- ④ 5연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저서 우니노라’와 같은 표현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3 ‘가던 새’에서 ‘새’를 하늘에 날아가던 새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사래’로 해석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에 대한 해석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3 |
| ㉠에 대한 해석을 한 가지만 언급하였으나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 1 |

4 ㉡은 상황에 맞지 않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켜는 불가능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작품 3 경설

내용 확인하기

133쪽

1 ④ 2 ① 3 ①

1 손의 질문 내용을 보면 손은 먼지가 가득 낀 거사의 거울로는 얼굴을 제대로 비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손은 먼지가 낀 거울을 보는 거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거사는 먼지가 낀 거울로 얼굴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거울을 닦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고 볼 수 없다.
- ③ 거사는 비록 먼지가 낀 거울이지만 조석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아 평소 거울 보는 것을 즐거움을 알 수 있다.
- ⑤ 거사는 거울이 희미해도 ‘그 같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2 이 작품은 ‘손의 질문 - 거사의 대답’의 순서로 서술하면서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3 손이 거사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 설득당하였기 때문이다.

작품 4 시조 세 편

내용 확인하기

135쪽

1 ⑤ 2 ③ 3 ③ 4 뫇버들, 새넛

1 ①~③은 모두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적 율격을 지닌다. 시조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되었고, 현대에도 창작·향유하고 있는 서정 갈래이다.

2 ①은 늙음에 대한 탄식을 주제로 하는 ‘탄로기’로 이별의 슬픔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②에서 ‘수양산’은 산의 이름을 가리키면서도 단종을 유배 보낸 ‘수양 대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것을 중의법이라고 한다.

- 4 '뭇버들'은 임이 화자를 떠올릴 수 있도록 임에게 보내는 화자의 마음이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새넙' 역시 '뭇버들'에서 생긴 것으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5 사미인곡

내용 확인하기

137~139쪽

1 ① 2 연지분 3 ④ 4 ④ 5 ③ 6 ① 7 임(임금)
8 ⑤ 9 ② 10 ④

-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창작된 가사이다. 가사는 4음보의 연속체이며 행의 수에 제한이 없어 길이가 긴 작품이 많다.
- '연지분(鰵脂粉) 잇너마는 늘 위흐야 고이 홀고'를 통해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이 작품에서 화자는 젊었을 때는 임의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는 임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작가 정철이 벼슬길에 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동인들의 탄핵으로 고향에 은거해 지내던 시기와 가장 비슷한 상황이다.
- 이 작품은 화자 한 명의 독백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여인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은 <속미인곡>이다.
- 우리 문학에는 여성적 어조로 이별이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관습이 있다.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보다 절실하게 전달하고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임과 화자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과 ㉡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은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물건이다.
-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은 임금을 상징한다.
- '심산궁곡'은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를 뜻하며, 여기서는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곳을 대낮같이 밝게 비추 달라는 것은 결국 임금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이다.

- 9 화자는 다시 태어나도 임을 따르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화자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즉, 임을 향한 화자의 일편단심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⑤ 화자가 소극적으로 임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까지 임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 10 '편작'은 중국의 명의이지만, 열 명이 와도 화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편작'은 화자의 시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소단원 평가

140~145쪽

1 ④ 2 ② 3 ④ 서술형은 이렇게 향가와 시조의 낙구에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집약하는 전통이 있다. 4 ② 5 논 6 ③ 7 ④ 8 ⑤ 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③ 14 ① 15 ⑤ 16 ⑤ 서술형은 이렇게 '산과 '구름'은 화자가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소재로 임금 옆에서 작가를 탄핵한 간신배를 의미한다. 17 ② 18 ⑤ 19 ③ 20 ⑤ 21 ⑤ 22 ① 2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이별, 임금 [2단계] 소극적, 적극적 [3단계] <사미인곡>과 <정과정곡>은 모두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이별한 임이 가리키는 바가 임금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사미인곡>의 화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반면, <정과정곡>의 화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호소하고 있다.

- (가)는 신라 시대의 귀족 계급인 승려와 화랑이 주로 향유하던 향가이고, (나)는 고려 시대 평민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 (가)의 화자는 기파랑이 없는 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시름이 많은 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가)의 9행의 '아아'와 <보기>의 종장의 '어즈버'는 감탄사로, 시상의 정서를 고양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향가에서 시조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이 지닌 형식상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향가인 (가)는 1~5행, 6~8행, 9~10행으로, 시조인 <보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②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한다.
- ③ <보기>의 화자는 망국의 비애와 인생무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뿐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눈'이라는 시어가 제시되어 있으나 <보기>에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4 이 시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시적 대상인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높은 절개 등을 그리고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기파랑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문답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시간의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대상의 변모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화자는 현재 일ونه 자갈 벌에 있으며 공간의 이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눈'은 잣나무 가지를 뒤덮으려 하는 존재로 기파랑이 겪은 외적 시련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6 '물 아래'는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청산이나 바다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⑤ '강수'는 독한 술을 의미하며, 화자가 일시적으로 현실의 고통과 고독을 잊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7 (나)는 작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작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농민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으로 보거나 현실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지식인, 또는 실연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작가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시어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지만, 시어 '임무든 장굴란'은 이끼가 묻어서 무딘 쟁기나 은장도 등과 같은 도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와 같이 '임금의 궁궐'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나)에 제시된 후렴구는 작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낸 것으로,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사

용되어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9 (가)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공방전>이라는 가전이고, (나)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경설>이라는 설(한문 수필)이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공방의 생애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공방을 통해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으나, (나)는 해학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 ③ (가)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0 거사가 맑은 거울이 아니라 흐린 거울을 취한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에 는 오히려 결점을 지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만으로 일관하기 어려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다수의 사람이 결점이 있으므로 그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것이다.

11 이 작품에서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사나 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공방'은 돈을 의미하며, ㉠은 돈이 일찍 만들어졌지만 세상에서 널리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 ② 거울은 반성과 성찰의 기능을 하거나 군자가 그 맑은 기품을 즐기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잘생긴 사람'은 군자와 같이 도덕적 결함이 없는 소수의 사람을 의미한다.
- ⑤ 손이 거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청명한 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인간의 결점을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사의 말에 수긍하였기 때문이다.

12 (가), (나), (다)는 모두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과 함께 4음보의 율격을 갖는다.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모두 3음절이다. 하지만 (가)~(다)의 시조에 후렴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13 (가)의 '뿔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뎌'에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4 (다)가 창작될 당시의 임금은 단종을 몰아낸 수양 대군이다.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작가는 단종의 복위에 힘쓴 인물로, 수양 대군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①과 같이 당시의 임금에 대한 충심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양 대군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시어이다.
- ③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은나라를 섬기면서도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먹으며 목숨을 연명한 '이제'를 비판하고 있다.

15 이 작품은 우리말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궁중의 용어나 수준 높은 한자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16 (나)의 동풍이 불어 적설을 헤쳐 내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임과 화자가 이별해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간신들이 몰려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7 화자가 임의 자취라고 생각하는 것은 밤 하늘의 달과 북극의 별이다. 매화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은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옥누고쳐(玉樓高處)와 같은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보이니 /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로 님자 하니 / 목숨의 밋쳐 이서 골슈(骨髓)의 썩터시니'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심산공곡(深山窮谷) 점나 7티 밍그쇼셔와 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18 (마)에서 '양춘'은 따뜻한 봄별을 뜻하며, 추운 겨울에 임이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는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소재이다. 따라서 ⑤와 같이 임이 화자에게 '양춘'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9 [A]에서 화자는 임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임을 따르려 한다. 이같이 한 사람을 위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②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비유하는 말이다.

④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잊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20 '범나비'는 죽어서라도 임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담긴 분신의 역할을 하는 시어이다. 따라서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㉓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낸다.
- ② ㉔는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낸다.
- ③ ㉕는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낸다.
- ④ ㉖는 겨울의 계절감을 나타낸다.

21 '던공후'는 공후라는 악기의 이름으로 화자가 여성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다.

22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랐더니 / 그 더덕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에서 '광한던'에 대응하는 시어가 '하계'임을 알 수 있다. '광한던'은 임금이 계신 대궐을 의미하고 '하계'는 화자가 있는 전라도 창평을 의미한다.

2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공통점의 발견

〈사미인곡〉은 임에게서 버림받은 선녀가 화자이고, 〈정과정곡〉은 임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화자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임과 이별한 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작가의 삶을 고려하면 두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은 모두 임금이라 할 수 있다.

■ 2단계 : 차이점의 발견

〈사미인곡〉의 화자는 임의 뜻과는 관계없이 끝까지 임을 따르려 한다. 이는 임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정과정곡〉의 화자와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정과정곡〉은 자신의 무고를 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두 작품의 공통점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하고, 화자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함. | 5 |
|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만 충족하도록 서술함. | 3 |
|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도록 서술함. | 1 |

[감점 피하기 tip] 화자의 태도에서 '적극성'과 '소극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작품 1 어이 못 오던가

내용 확인하기

148쪽

1 ⑤ 2 ③ 3 ③

- 1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발달과 산문 정신의 확대로 등장한 갈래이다.
- 2 이 작품에서는 입이 있는 곳을 사물의 나열과 연쇄법을 통해 표현하면서 해학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입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3 제시된 시어들은 모두 입이 화자에게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나열된 것들이다.

작품 2 흥보전

내용 확인하기

150~153쪽

1 ④ 2 ① 3 ②(당당하다). 4 ④ 5 ⑤ 6 ④
7 ② 8 ④ 9 ① 10 ③ 11 ④ 12 ② 13 ①
14 ④

- 1 '본읍 좌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삼십 냥에 결단하고 마삿 돈 닷 냥 받아 왔네.'를 통해 사람의 꺾임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을 정도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진 당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 2 [A]는 판소리로 연행되던 때에 '창'으로 불리었던 부분에 해당하며 4음보 연속체에 가까운 운율감이 느껴진다(ㄱ). 또한 [A]는 흥보가 자신이 매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불기의 구실이라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독자들이 웃음 짓게 하는 부분으로, 슬프고 안쓰러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해학미가 느껴진다(ㄴ).
- 3 ㉠은 가난한 흥보가 모처럼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평소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던 흥보가 뿌듯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4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 될 것이니'라는 말을 통해 흥보를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 5 흥보의 큰아들은 동생들을 꾸짖는 척하다가 결국 흥보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흥보의 큰아들이 다른 자식들과 달리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 6 ㉡의 첫 문장에서 큰아들은 오동철병과 큰 창옷을 요구하는 동생들의 철없음을 꾸짖으며, 자신은 아버지를 위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 큰아들은 동생들보다 더 황당한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가장 철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독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7 '에라 이놈 게 앓거라.'라는 도군퇴의 말에 흥보는 ㉢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와 같은 부분을 통해 병영의 위압적인 모습에 흥보가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8 이 작품의 주인공인 흥보는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 9 가난한 흥보는 어쩔 수 없이 매품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흥보에게 매품팔이는 호구지책이라 할 수 있다. '호구지책'은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②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이르는 말이다.
- ③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그림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10 [A]는 서로의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이다. 이 부분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가난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표현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인물을 희화화함으로써 해학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11 흥보는 앞서 각자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딱한 사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난이 다른 사람들의 딱한 사정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매품팔이를 포기하고 있다.
- 12 [B]에서 인용된 고사의 인물들은 모두 서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인용함으로써 흥보 아내는 자신

이 겪고 있는 설움을 더욱 강조하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3 ㉠에서 홍보 아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매품팔이를 갔던 홍보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홍보 아내는 처음부터 홍보가 매품팔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 가난함을 탄식하는 홍보 부부의 모습은 화려한 ㉠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홍보 부부의 처량한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3 절명시

내용 확인하기 155쪽
1 ⑤ 2 ③ 3 ③

- 이 작품은 국권 상실이라는 현실 상황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목숨을 끊기로 한 화자의 현실 대응 태도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러한 화자의 대응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에서 ‘새’와 ‘짐승’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은 국권을 빼앗긴 암담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비굴한 심리를 비유하고 있지 않다.

소단원 평가 156~160쪽

- 1 ① 2 ③ 3 ② 4 ③ 5 ① 6 ④ 7 ②
8 ④ **서술형은 이렇게** 청자(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유사한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4음보 연속체에 가까운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9 ④ 10 ⑤ 11 가난 12 ③ 13 ④ 14 ④ 15 ② 16 ⑤ 17 ④ 18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하늘, 읽은 책 [2단계] 병탄, 하늘 [3단계] 화자에게 ‘글 아는 사람 노릇’이란 ‘하늘의 도리’와 ‘읽은 책’에서 배운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 제국을 병탄하여 하늘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작가는 이에 항거하는 의미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1 (가)는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소 과장되면서도 해학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자층은 양반층이라기보다는 서민 계층일 것이다.

오답 풀이

- (나)는 양반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으므로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사설시조인 (가)보다 민속극인 (나)에 형식적인 제약이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객’이란 예전에, 시조 따위를 잘 짓거나 창(唱)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다.
- (가)와 (나)는 서민의 정서를 반영한 문학 갈래이므로 작자층을 양반 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여성으로 볼 수 있으며, 종장에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 남성에 대한 원망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고, (나)는 양반에 대한 풍자를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 계급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는 것은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가)는 사설시조로, 주로 종장의 길이가 제한 없이 길어진 형태의 시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의 첫 구는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 (가)의 종장에서는 반복법(①), 과장법(④), 연쇄법(⑤)을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종장에서 설의법(②)을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에서는 말뚝이가 ‘양반’이라는 말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 〈홍보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영웅이나 초월적 인물보다는 구체적인 일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현실적인 인간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 (나)에서 홍보는 자신에게 뻔뻔한 요구를 하는 자식들에게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불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보가 매품팔이를 하러 가는 아비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에서 화자인 홍보가 희망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홍보의 현재 삶과 대비되는 유복한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 ② '~ 되어 ~에 얹아 볼까'의 동일한 문장 구조에 단어만 바꾸어 가며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 ③ '볼기 구실 들어 보소.'는 화두를 던지며 청자(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이내 몸이V정승 되어V평교자에V얹아 볼까와 같이 4음보의 연속체에 가까운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9 홍보의 아내는 매품팔이를 하기로 결정하고 돈을 받아 왔다는 홍보의 말에 기막혀 하고 있다. 이어지는 홍보 아내의 말로 보아 그 이유는 매값을 적게 받아 와서가 아니라, 좌수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에 갔다가 곤장을 맞고 홍보가 죽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10 (가), (나)에는 서로의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가난으로 인한 고된 서민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시에 가난이 자랑거리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보기>는 가난한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리러 간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홍보는 가난하여 매품팔이를 하러 온 상황이다. 이로 보아 <보기>의 화자와 홍보의 공통된 상황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12 ㉠은 엄숙한 병영의 모습에 위축된 홍보의 심정을 드러낸다.

13 이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는 중세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근대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빈부의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 착한 동생 홍보는 몰락한 양반 계층에, 욕심 많은 형 놀보는 신흥 부농 계층에 대응된다. 권선징악의 구조는 홍보를 '선', 놀보를 '악'으로 보는 표면적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했을 때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③ 이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과 같이 중세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② 욕심 많은 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대의나 명분을 따지지 않는 인물로, 신흥 부농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의 표면적 갈등과 이면적 갈등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에 공존했던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14 홍보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음식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정 가장 애중 자식 ~ 이내 설움 어디다 하소연할꼬.'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 홍보의 노래를 듣는 아내는 처량하고 슬픈 심정임을 알 수 있다.

15 ㉠은 매품을 팔러 가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거기 뭐라 하오?'라고 묻는 부분이나 이어지는 자신들의 가난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아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이 작품은 국권 피탈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독자는 결연한 화자의 모습을 보며 경건함을 느끼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작가는 망국의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한탄하며 스스로를 반성한다. 그러나 강한 극복 의지로 일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작품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한시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 ④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은 이 시의 주제 의식과 거리가 멀다.

17 ㉠에서 '새, 짐승, 강산'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화자의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이 아니다.

18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글 아는 사람 노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가 생각하는 '글 아는 사람'의 도리를 찾아보아야 한다. <보기>에서 '위로는 하늘의 텅텅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단계 : 사회적 상황 확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글 아는 사람 노릇'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한다. 당시는 일본이 대한 제국을 병탄한 상황으로 작가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가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이에 항거하고자 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보기〉를 통해 ‘글 아는 사람 노릇’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사회적 상황과 결부시켜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 5 |
| ‘글 아는 사람 노릇’의 구체적 의미와 죽음을 선택한 이유 중 어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2 |

[감점 피하기 tip] 〈보기〉와 작품의 내용을 적절히 종합하면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에 언급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4) 근현대 문학

작품 1 초혼

내용 확인하기

164쪽

1 ㉔ 2 ㉓ 3 ㉒ 4 ㉑

1 이 작품은 상례 절차 중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招魂) 의식을 소재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따른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역설적 발상’이란 ‘어떤 주장이나 이론, 생각 등이 겉으로 보기에 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역설적 발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화자는 이별의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으나 재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작품은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이별에 대한 노래로 새로운 만남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관조적’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 ‘관조적 어조’는 시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어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비탄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관조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3 이 작품은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돌이 된다는 망부석 전설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 5연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라는 표현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4 ㉑과 ㉒은 화자와 임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이별한 임과의 단절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 2 만세전

내용 확인하기

166~169쪽

1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 2 ㉓ 3 ㉑ 4 ㉓ 5 ㉒ 6 ㉑ 7 ㉒ 8 ㉑ 9 ㉓ 10 ㉒ 11 ㉑ 12 ㉓ 13 ㉒

1 '만세가 일어나기 전'을 의미하는 '만세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1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이 겪은 일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안에 고정되어 있다.
- ④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3인칭 시점에서 어느 한 인물의 시선에 따라 사건을 서술할 때 해당하는 설명이다.

3 (나)에 '나'가 일본을 동경했다거나 그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④ '망국 백성이 된 지 ~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와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에서 '나'가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냈고 요즈음에 와서 '나'의 인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 굳게 의식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에서 일본에 유학하던 '나'는 이전에 가졌던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열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憂國之士)는 아니나 자기가 망국(亡國)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은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은 '나'의 어린 시절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열렬한 애국심을 보이던 것을 설명하는 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다.

5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끓어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조선인들이 자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일본에 대한 분노로 스스로 각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은 각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로, 민족의식이 사라지고 현실에 무감각해진 조선의 현실을 의미한다.

7 ㉢은 갖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만큼 순진하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의 주관에 개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에서 '오만한 태도'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나'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9 일본인 상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조선인 노동자를 매매하는 악랄한 행위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0 '궤자'는 삼인칭 대명사 '그'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11 '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인의 대화를 들은 후 식민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탈출하듯 동경으로 떠나버리고 만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판에만 머물러 있던 당대 지식인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2 옥실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거래하는 화제로 대화를 나눈 인물들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이 그러한 일을 했는지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3 '공동묘지'는 죽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나'가 조선을 공동묘지와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작품 3 백록담

내용 확인하기

171~172쪽

1 ① 2 ③ 3 ④ 4 ② 5 ① 6 ③

1 이 작품은 화자의 등반 과정에 따라 보이는 한라산의 자연 풍경과 이에 따른 감정을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산에 오르다가 휴식을 취하며 뽕꽃과 암고란을 보고, 다시 일어나 올라가면서 백화화 도체비꽃을 본다. 그리고 해발 육천척 위에서 말과 망아지, 소와 송아지를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한라산 정상에 도달하여 마침내 백록담을 보게 되며 몰아의 경지에 다다른다.

2 바로 앞에 제시된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퉁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도체비꽃의 쓸쓸한 모습을 무서움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에서는 동물들이 같은 종족끼리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같은 민족끼리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 이 작품에는 ‘옴매-옴매-’, ‘쇠-쇠-’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풍란이 풍기는 향기’(후각적 심상),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쇠-쇠-술소리’(청각적 심상),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시각적 심상) 등의 표현에서 다양한 심상이 사용되었다(㉢). 또한 화자는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신이 본 것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5 기도조차 잊은 채 백록담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는 화자의 모습은 자연과 하나되는 모습으로, 백록담에 이르러 자아와 세계가 일체화되는 경험을 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대상과 그것을 마주한 주체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는 것’을 뜻하는 ‘물아일체’가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 오답 풀이**
- ㉡ 불편한 삶에 몸을 높이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 ㉣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 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앎을 뜻하는 말이다.
- 6 ㉡는 ‘우리 새끼들도 저 송아지처럼 모색이 다른 어미에게 맡겨져서 길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서러운 마음이 들어 나는 울었다.’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과 문장 성분을 생략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4 광장

내용 확인하기

174~177쪽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대일 언덕 없는 난파관
13 ㉡

- 1 명준은 북에서 은혜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명준이 군대에 지원하게 된 것이 은혜 때문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 명준은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 ㉡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남한에서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 ㉣ 명준은 북한도 공허한 광장으로 인식하며 자신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공간이 아님을 깨닫는다.
- ㉤ 명준이 이상적인 혁명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북에서 재혼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
- 2 ‘동무’라는 말은 북한에서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거나 일반적으로 남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북한 장교가 명준을 ‘동무’라고 부른 것이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에서 비언어적 표현인 웃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앞부분 줄거리’에서 명준은 남한이 개인의 밀실만을 치장하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북한은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대하여 실망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4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내려보면서, 내뱉었다.’를 통해 명준의 설득에 실패한 장교가 증오의 감정을 드러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교가 명준에게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5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 북한군 장교와의 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남측 인사와의 대화는 명준의 관념 속에서 상상한 사건을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고자 하는 까닭은 남한과 북한이 지닌 이념적 한계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립국은 명준에게 이념과 사상이 배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중립국은 명준이 가 보지 못한 곳으로 유년 시절의 추억과는 관련이 없다.
- ③ 명준은 남한과 북한 어느 곳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중립국을 택한 것이므로 중립국을 명준이 간절히 바라던 이상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7 ㉠에서는 명준이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조국을 구할 인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능력을 치켜 세우면서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8 ‘종기가 났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릴 수는 없다’는 말은 작은 문제로 전체를 망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뽑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 ③ 여럿이 일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말이다.
- ⑤ 사람은 인정이 있어서 사정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9 명준이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중립국이라고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립국을 선택하려는 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0 명준은 북한 측과 남한 측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이후에 마음껏 웃음을 터트린다. 이는 양측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거절한 것에 대한 후련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조국인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중립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11 이 작품은 이념에 젖은 사회와 인물 간의 갈등이 중심을 이루며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회주의적 인물과 주인공이 대립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2 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이념의 갈등 속에서 남한이나 북한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어 중립국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도중 투신자살한다. 이러한 명준의 처지는 ‘대일 언덕 없는 난파관’의 처지에 빗댈 수 있다.

13 ‘참’은 ‘진실’이란 의미로 명준이 깨닫게 된 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명준은 남한에서의 삶과 북한에서의 삶을 통해 두 공간 모두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고 중립국을 선택한다.

작품 5 원고지



내용 확인하기

179~184쪽

- 1 ④ 2 ②, ④ 3 ① 4 ④ 5 ⑤ 6 ① 7 ① 8 ④
 9 ④ 10 이 원고지 11 ① 12 ③ 13 ④, ⑤ 14 ⑤
 15 ④ 16 ① 17 ③ 18 ④ 19 ①

1 ‘착취사’와 ‘악마사’라는 출판사의 이름을 통해 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 [A]는 3년 전 신문의 내용이고, [B]는 오늘 신문의 내용이다. 두 신문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변함없이 반복되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똑같은 신문을 읽으면서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은 규격화된 교수의 삶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소재로 교수가 꿈꾸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4 (나)에서는 번역을 더해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 처와 쉬고 싶은 교수 사이의 갈등이 잘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① 낮과 밤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교수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철쇄를 마치 옷처럼 입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동으로, 허구적 과장을 통한 부조리함에 해당한다.
- ③ 교수의 처가 말하는 생일의 주인공들은 굳이 챙길 필요가 없는 인물로, 관객들을 웃게 하는 황당한 대사이다.

⑤ 처가 말도 안되는 인물의 생일까지 챙기면서 교수에게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공부와 번역을 혼동하는 부분 등은 비정상적인 대화이다. 이는 교수와 처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교수가 처에게 미안해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처는 생일을 핑계로 어제도 그제도 교수에게 돈을 요구했다.
- ②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원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밤 여덟 시와 아침 여덟 시를 착각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교수는 과도한 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교수와 관련이 먼 사람들의 생일을 열거하는 부분 등에서 교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오기를 바라는 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이 피곤해’, ‘오늘 밤은 좀 꼭 쉬어야겠군.’ 등 교수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6 ㉠은 돈을 써야 할 일을 나열한 것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 교수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감독관이 교수를 회초리로 때렸기 때문이다.

8 음악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라)에서 ‘고요한 음악’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평온하게 잠든 교수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9 교수에게 원고를 독촉하는 감독관은 교수의 삶을 옥죄고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의 억압이나 구속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10 ‘이 원고지’는 다른 원고지와 달리 칸이 열 칸 모자라는 원고지로, 교수를 잠시나마 일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며 과거의 정열, 꿈을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11 천사는 교수가 잃어버린 꿈과 희망, 젊은 시절의 정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므로 교수의 처와 유사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플랫폼 방 안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남과 장녀의 모습이 보인다. 반면 처와 교수가 있는 옆방에서는 원고를 쓰고 있는 교수와 그것을 받아서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처의 모습이 보인다. 이 두 장면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3 ㉡은 교수가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희망과 정열, 꿈 등을 가리키는 말로, 원고를 쓰며 생활의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

는 현재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한 ‘뛰어난 재능’이나 ‘성공의 기회’와도 관련이 없는 말이다.

14 이 작품은 현대 희곡이자 부조리극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수와 처의 갈등, 자녀와 처의 갈등이 드러나므로 인물 간의 갈등 없이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에서 무엇이든 번역하려고 하는 교수의 우스꽝스런 행동이 제시된다. 따라서 희극적 행동으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인물은 장녀가 아니라 교수이다.

오답 풀이

- ①, ⑤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 읽어 드립니다.’라는 대사로 보아, 장녀는 관객들에게 현재 사건의 전개와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객들이 극 중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 준다.
- ② 장녀가 읽는 신문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교수가 읽던 신문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 ③ 장녀의 ‘그야말로 학자지요.’라는 대사는 공부나 연구보다는 돈 버는 일만 하는 교수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16 ㉢은 무대가 암전되었다가 새소리,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다시 밝아지는 무대 지시문으로 아침이 되었음을 표현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면서(ㄷ)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ㄴ). 그리고 암전 사이에 장남과 장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무대 위 등장인물에 변화를 주는 기능도 한다(ㄱ). 한편, 무대 배경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공간적 배경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ㄹ). 특히, 무대 배경을 바꾸어 공간적 배경을 바꾸는 것은 장막극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단막극인 이 작품과는 관련이 없다.

17 이 작품에서 교수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채 삶의 안정만을 위하여 힘겹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힘겹게 노동하는 것이 꿈을 펼치기 위함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18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을 ‘교수’, ‘처’, ‘장녀’, ‘장남’ 등의 호칭만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상실, 획일화, 삭막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9 ‘철쇄’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구속과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교수가 황급히 일어나 철쇄를 스스로 매는 행동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구속이나 책임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6 벼

내용 확인하기

186쪽

1 ② 2 ② 3 ⑤ 4 ④

- 1 이 작품에는 청유형 어머니가 아니라 명령형 어머니 '-라'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 2 이 작품은 '벼'의 다양한 속성을 민중의 모습에 빗대어 예찬적 태도로 표현한 작품이다.
- 3 4연에서 벼는 떠나가며 넓디넓은 사랑을 바친다. 이러한 벼의 모습에서 새로운 일어섬을 준비하는 자세와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떠나는 벼를 보고 외부의 시련에 굴복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에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4 ㉠은 억눌린 삶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면서도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지닌 민중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7 내 여자의 열매

내용 확인하기

188~191쪽

1 ③ 2 ⑤ 3 ⑤ 4 ④ 5 ④ 6 ④ 7 ③ 8 ②
9 ③ 10 ② 11 ⑤ 12 ④

- 1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무로 변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작품 전체로 보아 아내가 나무로 변하는 것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성(母性)을 지닌 어머니의 것으로, 현대의 도시적 황폐함이나 폭력성에도 사라지지 않는 원초적인 평화로움, 따뜻함 등을 의미한다.
- 3 ㉡는 나무로 변한 아내를 정성껏 보살피는 남편의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행동을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 도시의 풍요로움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제시된 본문은 이 작품의 '절정' 부분으로 나무로 변한 아내가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쓴 편지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장면이 자주 변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고, 갈등의 심화 과정도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② 주인공인 아내가 삭막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무가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이 작품은 생태학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 ③ 이 작품에서는 도시 문명의 황폐함을 비판하고 있다.
- ⑤ 아내가 나무가 된다는 설정은 비현실적 사건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5 '나'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이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행복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 6 [A]는 나무가 되어 가는 아내의 감각이 점차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묘사한 부분으로, '나'는 나무가 된 후 더 많은 것을 느끼며 만족해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다양하게 표현된 감각이 도시의 황폐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요'라는 구절은 역설적 상황 묘사로 볼 수 있다.

- 7 '나'의 토약질은 점점 나무로 변해 가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 8 의사가 '나'의 상태를 '노말' 즉 보통이라고 본 것은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보고, 문제 상황을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9 의사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하면서 '나'의 병을 '나' 스스로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 10 이 작품은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무로 변해 버린 아내를 통해 도시 문명의 황폐함과 비정함을 비판하고, 자연 순환적 생명성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삼고 있다.

- 11 '뒷부분 줄거리'에서 나무로 변한 아내('나')는 열매를 남기고 결국 시들어 버린다. 하지만 열매 속에는 씨가 있으므로 봄이 오면 다시 새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따라

서 ‘아내가 남긴 열매’는 생태계의 순환적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겨울이 되면 동물이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따위에서 겨울을 보내는 일 자체를 가리킨다.
- ② 꿈에서 자란 ‘나’의 키의 높이를 빗댄 표현이다.
- ③ 성장점 끝에 핀 꽃을 빗댄 표현이다.
- ④ 원초적인 평화로움이나 따뜻함을 상징한다.

12 ‘나’가 꾸는 꿈은 나무가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드높게 자라는 것으로, 식물의 자연 본원적인 생명력으로 현대 도시 문명의 황폐함과 비정함을 극복하고 싶은 소망을 상징한다.

소단원 평가

192~197쪽

- 1 ② 2 ③ 3 ① **서술형은 이렇게** 전통적인 3음보의 율격을 형성하여 시행이나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슬픔의 정서를 극대화하는 영탄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4 ③ 5 ① 6 ② 7 ⑤ 8 ② 9 ③ 10 2연 11 ⑤ 12 ⑤ 13 ⑤ 14 ③ 15 ① 16 ④ 17 ⑤ 18 ④ 19 ③ 20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벼, 눈, 긍정적 [2단계] 긍정적, 공감 [3단계] (가)의 화자는 ‘벼’에서, (나)의 화자는 ‘눈’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독자가 시적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1 (가)에서는 사랑하는 임의 죽음으로 인해 이별에 처한 화자의 모습이, (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감으로 인해 이별에 처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역설적 표현은 (나)에서만 드러난다. (나)의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나’ ‘아아 님은 갖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가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 ③ (나)에서는 슬픔이라는 부정적 정서에서 재회에 대한 희망이라는 긍정적 정서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가)에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유지된다.

- ④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나)에서만 드러난다.
- ⑤ (가)와 (나) 모두 대화체 어투가 드러나지 않는다.

2 유교 사상은 옛날 중국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도덕 사상으로 인(仁)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등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나)는 이러한 유교 사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이름이여!’, ‘하지 못하였구나’, ‘사람이여!’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격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은 하늘(저승)과 땅(이승)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한 부분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한다.

5 (가)~(다)에는 ‘나’와 일본인의 직접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갈등이 전개되고 해소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6 <보기>의 화자는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 작품의 ‘나’는 일제의 폭압에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나’가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비판할 수 있다.

7 ㉠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나 시대에 무관심하여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①, ②). 그러나 ㉠을 경험함으로써 일제의 강압과 수탈에 적개심을 갖고, 일본의 폭압에 고통스러워하는 조선인들의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③, ④). 다만, ‘나’는 그에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8 ‘욕객’은 목욕탕의 손님이라는 뜻으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9 백록담은 민족의 정기가 서린 장소이다.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백록담을 향하고 있다. 이를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보기>의 ‘고산 식물 앎고란 열매(시레미)의 달고 신맛에 다시 입 안이 고이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2연과 관련 깊은 내용이다.

11 ㉠은 화자가 백록담의 신비로운 모습에 흠뻑 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자와 자연물인 백록담이 합일된 경지를 뜻하며, 자아와 세계의 일체를 의미한다.

12 (가)에서는 남한의 정치 상황을 더럽고 오염된 '광장'에 비유하면서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도 북한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13 (라)의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인물의 관념 속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명준에게 중립국행은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회의를 느끼고 현실 도피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중립국을 명준이 지향하던 이상적인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15 (가)에서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프차가 도망'가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진술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무료한 사회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6 장녀는 장남과 함께 교수의 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인물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 물질 중심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17 [C]는 방백으로 극 중 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방백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다른 등장 인물들은 듣지 못하는 말로 약속된 대사이다.

18 (가)에서는 '백성들을 보아라.', '마음들을 보아라.'에서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명령형 문장이 아닌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19 '바람'은 벼에게 고난으로 상징되는 햇살의 뜨거움을 잠시 식혀 주는 존재로, 노여움을 덮게 해 주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20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핵심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 파악하기

(가)에서 핵심 시적 대상은 '벼'이고, (나)에서 핵심 시적 대상은 '눈'이다. (가)의 화자는 벼의 강인함과 희생적 사랑 등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눈의 순수함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한다.

■ 2단계 :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 찾기

두 작품의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시적 대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다소 무거운 현실 비판이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가)와 (나)의 핵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서술하고, 주제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 5 |
|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3 |
| (가)와 (나)의 핵심 시적 대상만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 1 |

[감점 피하기 tip] (가)의 화자가 핵심 시적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특성과 (나)의 화자가 핵심 시적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특성을 종합하여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대단원인 평가

198~207쪽

1 ② 2 ④ 3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4 ①
 5 ④ 6 ③ 7 ① 8 ③ 9 ③ 10 ③ 11 ③ 12 ④
 13 ② 14 ④ 15 ③ 16 ⑤ 17 새, 짐승, 강산 18 ②
 19 ③, ⑤ 20 ⑤ 21 ④ 22 ④ 23 ② 24 우리 자신들이 다른 민족인 일제에 맡겨질 상황이라 슬펐다. /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정체성을 잃어갈 상황이라 슬펐다. 25 ② 26 ⑤
 27 ① 28 ① 29 ③ 30 ① 31 주인공의 자살을 적극적 선택으로 보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인 바다로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 선택으로 보면 대립된 상황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④ 33 식물의 자연 본원적인 생명력으로 현대 도시 문명의 황폐함과 비정함을 극복하고 싶은 소망을 상징한다.

- 1 (가)는 <단군 신화>, (나)는 <주몽 신화>로 모두 국가의 건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이다.
- 2 ㉠은 주몽이 어머니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주몽이 겪는 고난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A]의 화자는 암수 정다운 피꼬리를 바라보며 입이 떠나고 홀로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입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했으나 입이 물에 빠져 죽자 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두 화자 모두 입과의 이별 상황에 놓여 있다.
- 4** (가)는 4구체 향가 <헌화가>, (나)는 8구체 향가 <처용가>, (다)는 10구체 향가 <찬기파랑가>이다. 하지만, (라)는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이다.
- 5** (다)는 10구체 향가로 향찰로 기록되었지만 <보기>는 시조로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이 모두 한자의 음과 훈을 모두 활용하여 기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6** ㉞는 울고 있는 새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부분으로, 새 역시 근심이 있어 화자처럼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새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살어리랏다’는 ‘살고 싶다’는 뜻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 ‘청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리리 알라에서 ‘ㄹ’과 ‘ㅇ’음이 반복되는데, 울림소리의 반복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이끼 묻은 쟁기’는 농사를 짓는 일을 하던 인물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떠돌아다닐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나즈란 디내와손더 ~ 바므란 쏘 었디 호리라’에서 ‘낮은 지내왔지만 밤은 또 어찌 하랴.’라고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7** (가)는 가전 작품으로,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세태를 비판한다. (나)는 한문 수필의 한 종류인 ‘설’로, 사물의 이치나 글쓴이의 경험에 의견을 덧붙여 삶의 깨달음이나 교훈을 준다.
- 8** (가)는 돈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공방’이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방이 직접적으로 폐해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 9** [A]는 손의 물음에 대한 거사의 답변으로(㉞), 거사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보다는 결점을 지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결백한 태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㉞), 당대 지나치게 결백한 태도를 보인 정치인들을 비판한 것이다(㉞). 이는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며(㉞), 결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작가의 개성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㉞).

- 10** (다)의 화자는 나이를 먹고 늙어 가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내지 않았다.
- 11** (다)는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양반들의 전형적인 ‘탄로가(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시조의 발생과 서민들의 삶과도 관계가 없다.
- 12** (라)의 화자는 청렴함의 상징인 백이와 숙제를 나무라며 다른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풀 한 포기도 취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 표현으로 화자의 굳은 절개를 보여 준다. 그리고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의 이름이자 ‘수양 대군’을 빗대어 가리키는 중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채미도 흐는 것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13**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정형성을 지닌 평시조이자 한수로 이루어진 단시조이다. 두 수 이상 연결된 형식은 연시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③, ④ (마)는 현대 시조로, 평시조의 기본 형식인 3장 6구를 유지하면서도 변형을 시도하였다. 즉,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를 유지하면서도, 초·중·종장이 각각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부분이나 각 연의 행 구분을 각각 다르게 배열하는 부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 14** ㉞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의 이름이자 ‘수양 대군’을 빗대어 가리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⑤ 화자는 1연과 2연에서 세상이 ‘나’를 위해 도는 줄 알았으며 ‘나’를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인식에 대한 반성이다. 이처럼 화자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였던 자신을 ‘분홍치마 계집애’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15** (다)에서는 꿈에서나 입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을 뿐 꿈에서 입을 만나고 있지는 않다.
- 16**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위태로운 조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무속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 17** <보기>는 감정 이입에 대한 설명이다. (마)에서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라고 표현하여 나라를 잃은 화자의 슬픔을 ‘새’, ‘짐승’, ‘강산’에 이입하고 있다.
- 18** ‘심산궁곡’은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로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킨다. 화자는 그곳을 대낮처럼

밝혀 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임금이 선정(善政: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을 베풀어 백성을 편안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9 (다)의 '뉘 아니 슬퍼하리.'에 작자의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흥보 부부의 탄식에 대한 작자의 평가이다. 한편 (라)는 조선 시대 박인로가 지은 가사 <누항사>로, 4음보의 연속체이지만 판소리의 사설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 ① '볼기 구실 들어 보소.'는 뒤에 이어질 장황한 사설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조그마한 한 칸 초막 ~ 앓은 지가 삼 년째 되었소.'에서 가난한 처지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 ④ '어허 그 뉘신고 염치업산 ~ 해염 만하 왓삽노라와 같이 화자와 소 주인의 대화를 통해 가난한 화자의 처지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 (다)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흥보 부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1 [A]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나열하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에서도 양반이 지낸 관직을 나열하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연쇄적인 표현을 통해 날이 새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엉터리 말장난을 하는 서방과 생원을 통해 이들의 무지함을 폭로하고 있다.
- ⑤ 꿈을 통해 인물의 앞날을 암시하고 있다.

22 (나)는 전통적 민요조를 기반으로 한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으로, 모더니즘 경향과는 거리가 멀다. 모더니즘이란 사상, 형식, 문체 따위가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창작 태도로 20세기 서구 문학·예술상의 한 경향이다. 우리나라에는 1920년에 유입되었으며 1930년대 정지용, 김기림 등에 의해 도시적 감각과 시의 회화성(이미지)를 중시한 모더니즘 시 경향의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23 (나)의 화자는 이별로 인한 절망적 정서를 격정적인 어조를 통해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전환하여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고 있다.

24 (가)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창작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은 화자가 털빛이 다른 어미한테 길러질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정체성을 잃어갈 상황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가)는 일제 강점하의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의 현실을, (나)는 1919년 3·1 운동 직전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다)는 1930년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는 암울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③ (가)와 (나)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는 독백적인 어투가 쓰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 ⑤ (나)에서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목욕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과 이에 따른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다)는 화자의 지식적 의지와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26 (나)에서 '나'는 일제 강점하의 조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적극적인 행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나)의 '나'가 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서술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가 서술한 내용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만든 사건이며, 이 사건 속에서 당대의 사회적 상황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가 서술한 내용이 작가의 직접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8 ㉠은 형식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세 처녀가 대답을 하면서 대화에 참여한 모든 인물들이 전율을 느끼는 감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가)의 형식은 서구의 근대화된 교육을 받으면 '힘'과 '지식', '문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대만의 생반'은 대만의 원주민 중 야생 생활을 하는 종족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조선인을 알잡아 보는 일본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가 '그자'에게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상판대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인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화자는 미래에 올 초인이 목 놓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씨를 뿌리겠다고 하며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 (다)에서 지시문은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잠을 자고 있는 교수의 모습, 다시 나타나는 플랫폼 방, 대조적으로 앉아 있는 인물들의 모습, 처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장남과 장녀의 말투, 순응하는 처의 태도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시문에서 작품 속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남한 측의 설득을 거부하는 모습은 명준이 상상한 것이고 이후 명준이 웃음을 터뜨린 것은 실제 사건에 해당한다.
- ② 명준이 남한도 북한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행을 택한 이유가 드러난다.
- ④ 처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외치는 장남과 장녀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⑤ 천사는 과거 교수가 지녔던 꿈과 정열, 열정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천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꿈과 희망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이라는 주제가 부각된다.

30 (나)에 따르면 ‘나’는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립국행을 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이 주는 환상에 환멸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그에 얽매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에서 환상을 떨치기를 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 명준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념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명준의 자살을 적극적 선택으로 보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인 바다로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명준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또한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 선택으로 보면 대립된 상황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밝히고, 적극적 선택과 소극적 선택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밝히고, 적극적 선택과 소극적 선택으로 구분하였으나 잘못된 서술 내용이 포함된 경우 | 3 |
|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밝혔으나 적극적 선택과 소극적 선택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서술한 경우 | 1 |

32 ‘바람 한 점에도 /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서러움과 노여움을 안으로 삭이며 내적 에너지를 응축하는 벼의 속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러움과 노여움을 표출

한’다는 것은 (가)에서 ‘벼’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민중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33 ㉠은 주인공의 소망이 꿈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도시 문명의 황폐함과 비정함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루나무처럼 자란 주인공이 세상을 뒤덮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황폐한 도시 문명의 비정함을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극복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이 상징하는 바를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이 상징하는 바를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3 |
| ㉠이 상징하는 바를 서술하였으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 1 |

5. 문학의 가치

(1) 문학과 삶의 다양성

작품 1 다시 느티나무가

내용 확인하기

211쪽

1 ③ 2 ②, ③ 3 ⑤ 4 ②

1 이 작품은 ‘유년기-청·장년기-노년기’에 따라 달라지는 느티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에서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후각적 이미지보다는 느티나무의 크기를 인식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을 이룬다.
- ④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느티나무를 의인화하지는 않았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풍자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⑤ 느티나무와 화자를 대조하고 있지 않다.

2 화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한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을 담담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⑤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느티나무가 자연 친화적인 대상은 아니다.

3 화자는 나이가 들면서 현재는 늙고 병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화자는 늙고 병든 현재의 모습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4 ㉠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느티나무가 있는 공간’이라는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고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삶의 깨달음을 주는 소재이다. 하지만 느티나무가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작품 2 김 씨 표류기

내용 확인하기

213~216쪽

1 ② 2 ④ 3 ⑤ 4 ④ 5 ④ 6 ③ 7 짜장면
8 ④, ⑤ 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⑤

1 이 작품은 시나리오로,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대본이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 것은 희곡이다.

오답 풀이

- ④ 무대에서 시공간적 배경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희곡에 비해 시나리오에는 사전에 촬영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제약이 적다.
- ⑤ 카메라 촬영으로 제작되므로 이에 관한 특수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2 이 작품은 밤섬에 표류하게 된 남자와 그의 표류 생활을 지켜 보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시나리오이다. 두 인물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소외된 채 살아가지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된다. 즉, 이 작품은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통해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킨 사람은 남자 김 씨가 아니라 여자 김 씨이다.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단순히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밤섬으로 짜장면을 주문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밤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 ②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남자 김 씨가 빛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아무도 살지 않는 밤섬에서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 ④ 여자 김 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4 여자 김 씨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인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남자 김 씨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가 원하는 짜장면을 배달시켜 주었다. 이로 보아 여자 김 씨는 타인을 경계하면서도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타인을 경계하고 혼자 방 안에 갇혀 지내는 것으로 보아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의존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없다.



5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여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내지만 남자 김 씨는 이를 다시 돌려보낸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여자 김 씨는 그 까닭을 몰라서 놀라고 있을 뿐 언짢아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② 배달원은 배달하기 어려운 곳으로 주문을 한 여자 김 씨에게 화가 나 있다.
- ③ 배달원은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긴 흑발의 여자 김 씨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멈춰서고 있다.
- ⑤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일이다. 하지만 여자 김 씨가 보내 준 짜장면을 먹게 되면 자신이 직접 이루어 내겠다는 삶의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민한 것이다.

6 배달원은 어디든 배달을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밤샘과 같이 배달이 어려운 곳까지 오게 되어 남자 김 씨와 여자 김 씨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7 그간 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꺼려하던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여 짜장면을 밤샘으로 배달시켜 준다. 이로 보아 짜장면은 남자 김 씨에 대한 여자 김 씨의 관심을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8 배달원은 여자 김 씨가 주문한 짜장면을 남자 김 씨에게 전해 주고, 남자 김 씨가 한 말을 여자 김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즉, 배달원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오리배를 타고 힘들게 밤샘에서 나오는 배달원의 모습은 작품의 분위기를 희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9 짜장면을 삶의 '희망'으로 여기는 인물은 여자 김 씨가 아니라 남자 김 씨에만 해당한다.

10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을 모두 '김 씨'라고만 나타낸 것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개인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 ⑤ '김 씨'라는 가장 보편적인 성을 통해 누구나 고립될 수 있으며 혹은 이미 고립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으로 인물의 고립된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여자 김 씨는 짜장면 만드는 것을 성공한 남자 김 씨에게 축하의 편지를 써서 와인병에 담아 밤샘으로 돌려보낸다. 따라서 남자에게 직접 가서 축하의 말을 건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여자 김 씨는 와인병에 쪽지를 넣어서 남자 김 씨와 소통했다.

S# 102에서 오리배 안에 그 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즐비해 서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12 카메라는 고립되어 방 안에만 있는 여자 김 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수단이자, 남자 김 씨를 관찰하는 도구이다. 남자 김 씨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3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와 진정한 소통을 하며 단절되고 고립된 자신의 삶을 답답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전에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꼈던 불박이장을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소단원 평가

217~220쪽

1 ① 2 이 작품의 화자는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과거보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높고 병든 것을 서러워하지 않는다. 3 ④ 4 ② 5 ④ 6 ② 7 ⑤

8 ⑤ 9 ② 10 ④ 11 ② 12 ② 13 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김 씨, 고립 [2단계] 무관심 [3단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씨 중 하나인 '김 씨'로 부름으로써 주인공의 상황을 현대인의 상황으로 보편화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 개인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 이 시는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달라지는 느티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순차적인 시상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④ 가정법이나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현재와 미래가 아닌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던 과거와 다시 커 보이는 현재를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청유형 어미가 아니라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2 이 작품의 화자는 고향집 앞의 느티나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한다. 노년기를 맞은 현재, 화자는 자신의 신체가 노쇠하여 느티나무가 크게 보이지만, 좌절하거나 서러워하지 않는다. 이전보다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을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모두 적절하게 밝히고 <조건>을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 5 |
|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모두 적절하게 밝혔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
|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서술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 1 |

3 화자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자신의 태도와 삶의 이치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이때 화자는 담담하고 차분하며 고백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다.

4 이 시에서 느티나무는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을 유도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이다. ②에서도 ‘가을’을 통해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별의 정한을 표현한 작품으로, ‘진달래꽃’은 입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화자의 분신이기도 하다.
- ③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인 사랑을 배를 매는 구체적인 경험에 빗대어 나타낸 작품으로, ‘뱃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을 비유한 것이다.
- ④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부엌’은 가부장적 억압이 존재하는 불평등한 공간이자 여성들의 정체성을 빼앗는 공간이다.
- ⑤ ‘물’은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돌이 될 정도로 그리움이 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5 작아 보이던 느티나무가 다시 커 보이게 된 노년기의 화자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청년기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화자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감을 느끼고 있다.

6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구절은 의미상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 절망(슬픔)이 없으나 절망(슬픔)의 세상이라고 하는 구절은 모순된 의미이지만 이를 통해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 ③ 문장의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꾼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 ④ 비정한 현실을 바다의 무생명성에 비유한 구절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⑤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7 이 작품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의 경우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용어가 많이 제시된다. 이는 인물의 성격, 장면의 분위기,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8 작품의 제목에 사용된 ‘표류’는 주인공 남자 김 씨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내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9 남자 김 씨는 밥섭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없이 홀로 지내고 있으며 여자 김 씨는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고립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③, ④ 남자 김 씨에게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여자 김 씨에게 해당하는 설명이다.

10 남자 김 씨가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짜장면(㉠)은 남자가 삶에서 스스로 이루어 내기 위해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남자에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짜장면(㉡)을 보내는데 이는 남자 김 씨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11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를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그가 짜장면을 만들어 먹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여자 김 씨는 온갖 어려움 끝에 짜장면을 만들어 낸 남자 김 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여자 역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12 이 작품에서 남자 김 씨는 도시에서 살며 적응하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무인도인 밥섭에 정착한 후에는 이전보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밥섭’에서 중심인물이 고통을 받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김 씨 표류기>를 통해서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 동네 구자명 씨>를 통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3 이 작품에서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던 인물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⑤는 ‘꽃’을 소재로 하여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통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광명 의 세계를 염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낸 작품이다.
- ②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의지를 드러 낸 작품이다.
- ③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겠다는 초월과 달관의 삶의 자세 를 노래한 작품이다.
- ④ 현실적으로는 임이 떠났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의지와 확신 을 드러낸 작품이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김 씨’라는 성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성씨 이다. 이 두 사람을 모두 ‘김 씨’라고만 지칭한 것은 타인과 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현대인으로 보편화한 것이다.

■ 2단계 : <조건> 확인 및 적용

남자 김 씨와 여자 김 씨가 처한 상황은 현대인이 겪는 상황 을 대변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홀 로 고립되어 있으나, 결국 진정한 소통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 을 관련지어 서술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두 인물을 ‘김 씨’라고만 나타낸 까닭을 정확하게 제시하 고,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관련 지어 서술한 경우 | 5 |
| 두 인물을 ‘김 씨’라고만 나타낸 까닭을 정확하게 제시하 였으나,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관련지어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 |
| 두 인물을 ‘김 씨’라고만 나타낸 까닭을 막연하게 서술한 경우 | 1 |

(2) 문학과 공동체

작품 1 바퀴벌레는 진화 중

내용 확인하기

223쪽

1 ④ 2 ② 3 ①

1 이 시에서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3연에서 ‘몰라’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바퀴벌레의 진화에 대 한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연의 구분은 있지만 산문처럼 행을 구분하지 않고 시상을 전개 하고 있다.
- ③ 1연의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 물이란 것을’에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 ⑤ 3연의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2 이 작품은 바퀴벌레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환경 오염의 심 각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바퀴벌레의 진화를 보면서 그 끈질긴 생명력에 놀라고 있는데, 이러한 충격과 우려를 ‘-르 수 있단 말인가’와 같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3 ‘시멘트와 살충제’는 바퀴벌레가 사는 공간으로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즉 생명이 살기 힘든 오염된 상황 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①은 반생명적 속성을 지 닌 현대의 물질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살충제’는 바퀴벌레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이 작 품에서는 바퀴벌레가 오히려 독한 살충제에도 살아남는 모습을 제시하여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바퀴벌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내용 확인하기

225~229쪽

1 ① 2 ⑤ 3 ⑤ 4 ④ 5 ① 6 ④ 7 ⑤ 8 ③
 9 ④ 10 ③ 11 ② 12 오목이가 자신의 친동생이며 그
 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일을 가리킨다. 13 ④ 14 ⑤
 15 은표주박

1 오목이는 자신이 수지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목이가 자신의 정체를 수지에게 밝힐지 말지 고민하는 장면은 이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와 관련된 장면이다.
- ③ '수지는 여동생(오목)에게 항상~오목이의 손을 놓는다.'와 관련된 장면이다.
- ④ '오목이의 결핵이 심해져 쓰러지고 만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 ⑤ '오목이는 고아원 친구인 보일러공 일환과 결혼하여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와 관련된 장면이다.

2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중산층으로서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은 오목이가 아니라 수지와 수철이다.

오답 풀이

- ① '오목이는 고아원 친구인 보일러공 일환과 결혼하여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는 것으로 보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수지는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고아원에서 오목이를 발견하지만 자신이 언니라는 것을 밝힐지 말지 고민한다.
- ③ 수지는 파티에 참석한 수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지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 ④ 수지와 수철은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

3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준다는 것은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물도 아무 소용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수지가 수철이에게 오목이와 관련된 일을 의논해도 수철이가 이 문제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4 수지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신분 상승에만 관심을 가지는 속물적인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지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그 겨울은 결국 나만의 것이었어. 그 겨울이 없었던 사람하고

어찌 그 겨울의 죄과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던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파티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수지는 수철이 그것을 정말 잊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그녀는 그 순간 뼈가 시리게 고독했지만 땀뻘뻘하고, 땀뻘하다는 느낌은 그지없이 좋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신분 상승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수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5 '1951년 겨울'은 6·25 전쟁 당시 수지가 오목이의 손을 일부러 놓아서 헤어지게 된 때를 말한다.

6 수지가 수철과 나누려고 했던 근심은 표면적으로는 동생 오목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오목이가 죽은 후 남겨질 다섯 아이의 양육 문제이다.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피란길에서 동생의 손을 놓고 고아가 되도록 한 것, 고아원에서 만나서도 자신이 언니임을 밝히지 못한 미안함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으로 살아오면서 동생인 오목이의 어려움을 돕지 못한 미안함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지나 수철이 부나 명예만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반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7 수철이나 영란뿐만 아니라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쟁의 비극이나 상처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영란은 갈비를 마구 뜯는 수지의 모습을 보며 창피해하며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란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9 수지는 오목이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 파티 중인 수철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수지는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성격을 지닌 영란의 모습을 보면서 오목이의 아이들을 영란에게 맡기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0 이 작품의 서술자는 전지적인 위치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내부에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수지와 오목이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 ② 중산층으로 살아온 수지가 오목이를 만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이산가족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 ⑤ 수지와 수철, 영란의 모습을 중심으로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외마저 외면하는 이기적이고 허위의식에 가득찬 중산층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1 동생을 버리고 외면했던 수지가 오목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죽음을 앞둔 오목이가 수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는 이기적인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풍자적인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 ③ 비극적인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동화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④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 ⑤ 수지와 오목이가 자매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숨겨진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수지는 오목이가 죽기 전에 자신이 오목이의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히려려고 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오목이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점, 오목이에게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 5 |
| 오목이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점, 오목이에게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중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 3 |
| 오목이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등과 같이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 1 |

13 이 작품에서 ‘겨울’은 수지가 오목이를 버렸던 1951년의 겨울과 수지가 오목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현재의 겨울이 제시되고 있다. 제목이 가리키는 따뜻한 ‘겨울’은 이기적이고 비정했던 과거의 겨울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를 통해 가족간의 정을 회복하는 현재를 의미한다.

14 수지는 친언니인 자신에게 버림받은 사실도 모른 채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오목이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오목이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15 ‘은표주박’은 오목이가 가족과 헤어지게 된 계기를 만든 소재이므로 불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목이가 고아가 된 이후부터 간직해 온 물건이므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230~234쪽

- 1 ① 2 ① 3 ⑤ 서술형은 이렇게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4 ① 5 ② 6 ③
7 ③ 8 ① 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①
14 ①,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전쟁, 오목이(동생), 죄책감(미안함) [2단계] 1951, 가족 [3단계] 수지가 오목이와 헤어지게 된 추운 겨울과 달리 수지의 진정한 참회를 통해 가족 간의 정이 회복되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겨울이라는 의미이다.

1 이 작품은 연의 구분은 있지만 행을 산문처럼 길게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작품에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현재의 오염된 상태가 진행되어 미래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을 뿐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독약, 쇳덩이, 금속의 씨, 중금속 폐기물은 모두 현대의 물질문명을 의미하지만, 먼지와 수분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3 오염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는 바퀴벌레의 모습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⑤에서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의 모습을 보금자리를 빼앗긴 비둘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민중을 억압하는 거짓된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의지를 그리고 있다.
- ④ ‘껌데기’로 상징되는 모든 허위와 가식은 사라지고 ‘알맹이’로 형상화한 순수만이 남기를 바라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4 3연에서 ‘~지 몰라’라고 하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 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1연의 1행에서 바퀴벌레를 ‘저것들’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시를 읽는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3연에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등과 같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여 앞으로 더 심각해질 환경 오염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④ 1연에서 '그렇지 않고서야~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등의 영탄적 어조를 통해 바퀴벌레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부정적인 소재인 바퀴벌레를 소재로 하고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바퀴벌레를 통해 인간이 초래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다.

5 ㉠은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바퀴벌레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다.

6 ㉠은 현재 물질문명의 발달로 환경이 오염되기 전의 깨끗한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7 ㉡는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던 시기, 즉 현대 물질문명이 발달하기 전의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바퀴벌레가 사는 공간과 환경으로, 현대 물질문명을 상징한다.
- ②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바퀴벌레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는 상황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는 상황 등을 제시하여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로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명체가 살기 힘든 상황을 빗방기에 비유하고 있다.

8 이 작품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산가족의 비극을 그리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건을 배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수지와 수철, 영란의 모습을 통해 중산층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 ③ 6·25 전쟁 당시 이산가족이 된 이후부터 성인으로 성장한 1980년대까지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도 주인공 수지의 심리와 그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수지가 친동생인 오목이를 찾은 후 진실을 밝힐지 말지 갈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고 참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9 영란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성

격을 지닌 인물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모습은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가져다 준 이산가족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지와 수철을 통해 자신의 혈육조차 냉정하게 버리는 중산층의 속물적인 이기심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오목이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과 관련지을 수는 있지만, 이 작품의 주제 및 <보기>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11 수지가 동생 오목을 버리게 된 주된 이유는 피란중의 배고픔 때문이었다. 허기 들린 귀신처럼 수지와 수철의 밥마저 빼앗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그녀를 떼어 버릴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나>에 나타난 수지의 모습은 지난날 1951년 겨울의 '그 이상한 허기'를 생각하며 당시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죄의식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음식을 악착같이 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12 수지는 오목이를 버린 죄책감과 자신이 친언니임을 밝히지 못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오목이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수철에게 알려 오목이의 다섯 아이를 함께 키우고 의논하려고 했던 것이다. ②의 '허깨비처럼 텅 비어 보이는' 모습은 수철에 대해 수지가 느낀 감정이며, ①의 근심과는 관련이 없다.

13 ㉠은 오목이의 목소리를 통해 거의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수지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③, ④ 사건 전개에 흐름상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뿐 ㉠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 수지는 오목이가 죽기 전에 어릴 적 동생을 버린 자신의 잘못과 그것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

15 수지에게 버림을 받아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하는 오목이가 용서를 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지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목이가 먼저 수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②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③ 수지가 오목이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목이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⑤ 오목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16 오목이가 은표주박을 오래전부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혀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분 상승의 욕구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③ 수지는 피란길에서 오목이에게 은표주박을 쥐어 주고 동생을 버렸다.
- ④ 수지가 오목이에게서 은표주박을 넘겨 받는 것은 오목이의 남은 아이들을 수지가 정성스럽게 양육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 ⑤ 오목이가 임종하기 전에 건넌 은표주박을 보자 수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된다.

17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는 수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목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㉘를 통해 오목이가 수지를 용서했으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철이 오목이의 아이들을 수지와 나누어 돌보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8 ‘엄습하다’는 ‘감정, 생각, 감각 따위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거나 덮치다’는 의미이다.

1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 키워드 발견

이 작품은 6·25 전쟁과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적 윤리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수지는 1·4 후퇴 때 자신의 밥까지 빼앗아 먹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일부러 손을 놓아 헤어지게 된다. 이후 자신의 잘못에 죄책감을 느끼다가 고아원에서 오목이를 찾게 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고 외면한다. 하지만 오목이 죽는 순간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게 된다.

■ 2단계 : <조건>확인 및 적용

과거에 수지와 오목이가 헤어지게 된 겨울은 전쟁으로 비극이 일어난 겨울이지만, 진정한 참회와 용서로 가족간의 정을 회복한 현재는 그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 채점 기준 | 배점 |
|--|----|
|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과거와 현재의 겨울을 대비하여 서술한 경우 | 5 |
|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제시하였으나 과거와 현재 중 한 가지만을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 3 |
|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 1 |

대단한 친구 평가

235~240쪽

- 1 ① 2 ⑤ 3 ② 4 ①, ⑤ 5 ④ 6 ⑤ 7 ⑤ 8 ③
 9 ① 10 ③ 11 ③ 12 '평상'과 상반된 의미의 공간은 밤섬, 방(안)이며, 이 공간은 '평상'과 달리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공간이다.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②
 18 ② 19 ⑤

1 (가)는 고향집 앞의 ‘느티나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며, (나)는 익숙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바퀴벌레’를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답 풀이

- ② (나)에만 해당된다.
- ③, ④ (가), (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가), (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나)에는 환경이 오염된 부정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2 3연에서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확장된 노년기에 느끼는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과 삶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미래에 느티나무를 인식하게 되는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와 관련된다.
- ② 느티나무가 커 보였던 유년기와 달리 현재는 느티나무가 작아 보인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1연은 청·장년기의 인식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와 관련된다. 여기서 ‘옛날처럼’은 유년기를 가리킨다.
- ④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과 관련된다.

3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대상인 바퀴벌레의 ‘현재 생태에 대한 인식 → 과거 생태에 대한 인식 → 미래 생태에 대한 인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바퀴벌레의 특성을 드러낼 뿐 대상의 의미가 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1연의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에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3연의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에서 반어법을 사용하여 미래에는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④ 3연에서 '로봇처럼, 정말로~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나올지 몰라' 등에서 추측의 의미를 지닌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 ⑤ 1연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바퀴벌레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과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4 (가)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삶을 성찰하고 있으며, <보기>의 시는 소재들의 대칭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에서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등에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보기>에서도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③ (가)에만 해당된다.

5 ㉠은 화자의 자아 성찰을 유도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며, ㉡은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에서도 진화하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화자에게 환경 오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① 오히려 ㉠이 긍정적인 존재이고, ㉡은 부정적인 존재이다.

6 바퀴벌레가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오염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바퀴벌레의 모습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살충제'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다. 따라서 현대의 물질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7 '보이지 않는 빙하기'는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명체가 살기 힘든 상황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상황은 더 이상 걸모습으로만 대상을 지각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걸모습으로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라진 상황이다.

②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시기는 높고 병들었지만 세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노년기이다.

③ 현대 물질문명이 발달하기 전의 자연을 가리키며, 오염되기 전의 깨끗한 환경을 의미한다.

④ 바퀴벌레의 씨를 썩지 않는 단단한 상태로 표현하여 끈질긴 생

명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8 이 작품은 영화 시나리오로,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과거의 시간적 교차와 중첩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9 (가)에서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로 보아 남자 김 씨는 처음에는 밤섬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의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의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마)의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0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밤섬으로 배달시켜 보내는데, 이를 통해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짜장면'은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여자 김 씨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소재는 아니다.

11 배달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자 김 씨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여자 김 씨의 성격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배달하기 어려운 곳으로 갔다가 다시 여자 김 씨에게 되돌아갔기 때문에 배달원은 몹시 화가 나 있다.

② 여자 김 씨는 짜장면을 받은 남자 김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④ 여자 김 씨는 결국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일에 성공한 남자 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⑤ 여자 김 씨는 불박이장을 자신의 안식처로 생각하며 고립된 채 살아왔지만 남자 김 씨와 소통하게 된 후 불박이장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변화를 보인다.

12 <보기>에서 '평상'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높이에서 둘러앉게 되는 수평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곳이다. 이와 다르게 이 작품에서 '밤섬'과 '방 안'은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 고립된 공간을 의미한다.

| 채점 기준 | 배점 |
|---|----|
| 소재를 두 가지 모두 제시하였으며, '평상'과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 |
| 소재를 한 가지만 제시하였으며, '평상'과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 |
| 소재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평상'과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1 |

13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주로 수지의 시각에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라)에서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 부분은 없다.
- ④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는 사건의 내부에 있지 않다.
- ⑤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은 없다.

14 이 작품은 6·25 전쟁에 의해 한 가족이 헤어져 오랫동안 비극을 겪게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등장인물의 삶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 현대인의 소외감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15 (가)의 '그러나 파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수지는 수철이 그것을 정말 잊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다'를 통해 수지는 그 겨울의 기억을 수철이 다 잊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영란은 수지가 갈비 양념이 묻은 손을 활아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란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수철을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는 기억에 대해선 얼마든지 시치미를 뚝 수 있는 위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6 1951년 겨울은 수지가 동생이 싫어서 일부러 손을 놓아 헤어진 때를 말한다.

17 ㉠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삶의 미련과 욕망에서 벗어난 오목이의 목소리를 '미풍'과 '환청'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오목이는 병이 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 ③ 오목이는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지 수지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아니다.

④ 오목이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8 수지가 말한 자신의 죄는 어릴 적에 동생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동생을 찾았는데도 자신이 가족임을 밝히지 않고 외면한 것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⑤ 수지는 오목이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작품의 내용과 다르다.

19 수지는 피란길에 오목이에게 은표주박을 주어 오목이의 관심을 온통 은표주박으로 쫓리게 하여 길을 잃게 한다. 따라서 은표주박은 수지에게는 최악의 시작이 되며, 오목이에게는 불행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죽음에 다다른 오목이가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건네 주는 것을 통해 은표주박은 오목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구이자 수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징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지에게는 진정한 참회의 매개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emo



Memo